

## 불교와 의학윤리

김 두 희\*

### 1. 서 언

예로부터 인간의 삶의 질에 있어서 의료에 대한 의존심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임상에서의 시술방법은 주술적인 것부터 첨단 과학적인 방법에 이르기까지 변천되어 왔지만 그 시술자는 항상 새로운 문제의 딜레마에 봉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반 사회적 공중보건학적 윤리" 면에서의 전염병 유행이나 환경오염 문제 등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어려웠던 상황들을 그 시대의 요구에 따라 범 국가적 책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어 해결해 보고자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적 임상상의 문제제기는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도 성안되지 못한 경우에 사전화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다만 인간의 몸에는 어떤 외적 가료(加療)로도 불가능한 병적 현상에 대한 내재적 치유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의학도는 없을 것이지만 일단 어떤 딜레마에 봉착하면 의료인으로서의 자세와 처리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는 우리 의료계에서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 하겠다. 물론 시술자(施術者)와 수혜자(受惠者)의 도의적 자질문제도 적지 않다. 자질이라는 것은 의료기술과 윤리적인 측면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전문교육기관에서는 주로 의료기술을 교수하고 윤리는 교양과목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학도가 되기 이전의 자라온 바탕 위에 의료기술이 가미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전의 바탕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교육이라고 생각된다. 가정교육의 원천은 전통적인 생활 풍습이며 이 풍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종교적 윤리관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우리나라의 종교적 윤리관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종교적 사상비교가 비교적 잘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유·불·선(儒·佛·仙) 사상<sup>1)</sup>과 기

\*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1) S.S. Coughlin and T.L. Beauchamp: Ethics and Epidemiology. Oxford Univ Press, N.Y., U.S.A., 1996

2) 최채경(崔埰卿) 역, 미치하타로슈(道端良秀) 지음: 불교와 유교, 한국 불교 출판부, 서울, 211 쪽.

독교(基督教) 사상<sup>1)</sup>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선(禪)과 기독교」라는 일서(日書)를 번역 출판한 조문사(潮文社)<sup>2)</sup> 편집실은 그 후기에 선과 기독교와의 대화는 동양과 서양의 대화라 하고 동서문화의 교환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의학적 윤리 측면에서도 이러한 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필자<sup>3)</sup>는 계통적 임의추출법에 의해 선택된 총 280명의 임상 의사 중 98명이 기독교도이고 80명이 천주교이며 불교가 41명, 유교 2명, 기타 6명, 무교가 50명이었는데 기독교와 천주교를 합하면 178명으로 전체의 약 60%였으며 동양적 사회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불교 유교 무교 등을 합하여도 40%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불교적 의료윤리관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필자는 불교사상과 의학윤리에 대하여 나름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불교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와 달리 교리의 창시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나 귀의가 아니고 “스스로의 자각을 바탕으로 타인들과도 어울려 진실한 지(知)란 무엇인가를 묻는 노력을 계속하는 종교”<sup>4)</sup>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불교는 **부처가 깨달은 만큼 중생도 깨닫게 가르치는 교**이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는 것을 제일 목표로 삼는다. 그 **진리**라는 것은 철학적인 면으로서 우주의 진리와 자기의 참 생명과 바른 인생관을 깨닫고, 도덕적인 면으로 일체 중생이 악한 마음을 고쳐서 착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며, 생활적인 면으로 일체 중생이 괴로움을 떠나 영원한 복락(福樂)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sup>5)</sup>

불교에는 크게 대승(大乘)<sup>6)</sup>과 소승(小乘)<sup>7)</sup>의 2대 유파(流派)가 있으나 우리 나라에는 중국을 거쳐 들어온 주로 대승불교의 선종(禪宗)<sup>8)</sup>이며 여러 종파가 있으나 조계종(曹溪

1991: 儒=儒敎, 佛=佛敎, 仙=道敎의 다른 이름. 유교는 서민이 아닌 선비신분 이상의 전유물인 만큼 실제로 유교가 서민의 것이 되었을 때는 이미 儒·佛·仙의 3교가 융합된 상태가 된 것이다.

- 3) 기독교는 천주교(구교)와 기독교(개신교)로 2대분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볼 때 같은 바탕의 사상으로 보았다.
- 4) 조목하 역: 「禪과 基督教」, 潮文社, 170 쪽, 1990: 야마다 레이링(山田靈林) 조동종교학부장 駒澤대학총장)과 구와다 히데노부(桑田秀延) 신학박사로 元東京대학장)의 대화로 편집된 서적이다.
- 5) 金斗熙: 임상의사의 윤리관: 미발표(연구중)
- 6) 金容雲: 불교와 카오스(chaos) 이론. 한국불교의 좌표. 緣園스님 古稀紀念學術論叢: 1104-1131, 1997. 카오스는 그리스인의 우주개벽론(kosmogonia)에서 만물발생 이전의 원초상태를 말하며 혼돈(混沌)이라고 번역되는 경우가 많으나, 캄캄한 텅 빈 공간을 의미한다. 논리적 원리(arche)로서의 자연(physis)을 거론한데서부터 아이오니아(ionia) 자연철학의 우주론(kosmologia)이 시작되었다. 불교에 서의 무명(無明)의 뜻이 담겨있는 것 같다.
- 7) 월현사 포교원: 신앙에서 본 부처님 도력의 말씀 제26판, 불기 2539(1995)
- 8) 대승: 2세기경에 일어남. 종래의 불교였던 소위 소승에 반대, 그 특징은 자신의 이익보다 많은 중생을 구제(救濟)하기 위한 이타행(利他行)을 실천함으로써 부처가 되는 것을 주장하는 점이다. 그 수행하는 자를 bodhisattva라 하는데 한문으로 음사하여 보리살타하며, 즉 bodhi(覺)와 satva(有情)를 합한 말

宗)<sup>11</sup>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초기에는 하나였으므로 특히 원시불교(原始佛敎)<sup>12</sup>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윤리관과 의학적 윤리를 관련지어 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된다.

불교는 일반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다. 어렵다는 느낌은 경전이 모두 한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되나 요즘 간행되는 한글판 불교 경전을 보면 아주 이해하기 쉽고 우리들의 삶의 현상이 불교경전 설명과 맞지 않는 것이 거의 없다. 불교도가 아니더라도 이 내용은 윤리적 딜레마에서 바른 길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믿어 마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불교적 의료윤리라는 제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 까닭에 보다 쉽게 풀이하려고 노력하다보니 생각보다 논조가 길어졌으므로 양해하기 바라마지 않는다.

## 2. 역사적 배경

사다티사(Saddhatissa)가 저술(조용길 편역)<sup>13</sup>한 근본불교 윤리(Essence of Buddhism)에 관한 결론은 덕성스런 인간성 회복이 그 사상의 척도가 되며 그 사상철학 자체가 인간중심의 사바세계<sup>14</sup>와 mam sya<sup>15</sup>라는 의식하는 인간에서 서로 믿고 사는 화

로 표현한 것이다. 약자로는 bot-sat을 한문으로 보살(菩薩)이라 번역한 것 같다. 즉 깨달음의 성취를 바라는 사람, 구도(求道)하는 사람, 대승적 의미에서 스스로 불도를 구하고 타인을 구제하여 깨닫게 하는 자, 대사(大士), 고사(高士), 개사(開士) 등으로 한역함. 보살은 출가(出家)보살과 재가(在家)보살이 있다. 즉 깨달음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람으로 대승에서는 이와 같은 구도자 역시 무수하게 존재한다고 여긴다(유마경, 불전간행회, 1993). 민중적(民衆的)이었기 때문에 힌두교의 여러 요소를 많이 도입하고 있다.

- 9) 소승: 대승에 비하여 그 수행하는 바 교(敎)·이(理)·행(行) 및 수행(遂行)하는 사람이 열등하다는 점에서 멸칭(蔑稱)하는 말. 사람을 태워 이상경(理想境)에 이르게 하는 교법(敎法), 즉 수행자는 붓다가 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번뇌를 끊고 자기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교법, 둥근(鈍根)의 자는 다만 부처님의 말을 듣고 아라한이 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수행하는 사람을 성문(聲聞)승이라 하고, 이근(利根)의 자는 한결같이 12인연을 관하여 벽지불이 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수행하는 연각(緣覺)승이 있다.
- 10) 선종: 좌선 내관(內觀)의 법을 닦고 인간 마음의 본성을 깨달으려고 하는 종파의 이름. 이 종은 석존에게 정법을 유족 받은 가섭(迦葉)으로부터 28조인 보리달마(菩提達磨, Bodhi-Dharma, ?-528)가 520년(양의 보통1) 중국에 와서 혜가(慧可)에게 법을 전한 후 6조에 이르러 혜능(慧能, 南宗)과 신수(神秀, 北宗)로 갈렸으나 남종만이 번성함. (박영규: 달마에서 경허까지, 정신세계사, 서울, 1996)
- 11) 조계종: 우리 나라 선종(禪宗)의 총칭. 1200년(고려 神宗 3년)에 불일(佛日) 보조국사가 승주군(昇州郡) 송광산(松光山) 길상사(吉祥寺)에서 정혜사를 창설. 회종(熙宗)이 즉위하여 산 이름을 조계산(曹溪山), 절 이름을 수선사(修禪寺)라 고친 뒤부터 조계종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1212년 고려 강종(康宗)이 조계종 수선사파를 조계종이라 하였으나 어느 한 종만이 독점한 것은 아니고 선종(禪宗)으로 범칭(凡稱)하였던 것. 그 뒤 1941년 북한산 태고사(太古史)를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으로 옮겨 짓고 조선 불교 총 본산을 만들면서 선교양종(禪敎兩宗)이란 종명을 고쳐 조계종이라 함. 선교 양종은 선종 교종을 말함. 고려시대 7종으로 갈라졌던 불교종파를 2종으로 만든 것. 곧 1424년 세종(世宗) 6년에 왕명으로 조계종 천태종 총남종(총지종 남산종)을 합하여 선종, 화엄종 자은종 중신종 시흥종을 합하여 교종(敎宗)이라 하였다.
- 12) 최법해: 불교윤리학론집, 고운사(孤雲寺) 본말사교육연수원, 법공양판 1996

합의 정신회복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바로 이것은 인간의 종교와 철학과 윤리성의 종합적인 사상인 원시불교의 근본적 방향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 1) 싯다르타(悉達多, Siddhārtha)의 출가 동기와 깨달음까지

싯다르타<sup>16)</sup>가 안고 있었던 문제는 “왜 인간은 태어나고 또 병들어 고생하며 죽어야만 하는가?” 라는 생로병사의 두려움이었기에 실존의 아픔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sup>17)</sup>이다.

석가모니불의 일대<sup>18)</sup>를 간단히 요약해 본다. 그는 카피라 국의 태자로 탄생하여 궁전 안에서만 생활하다가 어느 날 대궐밖에 나가 바람을 쏘이고 싶어 그 뜻을 부왕에게 고하고 허락을 얻었다. 4대문 밖을 수레를 타고 살폈는데 그때마다 서로 다른 광경을 목격하고 궁성에 돌아와서는 명상에 잠기었다.

동문 밖에서 지팡이처럼 바싹 마른 노인(老人)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서문 밖에서 누더기를 뒤집어 쓴 채 쓰러져 신음하는 사람(病者)을 보았다.

남문 밖에서 죽은 시체를 앞세우고 슬피 울며 지나가는 행렬(死者의 葬禮行列)을 보고 북문 밖에서 텅수룩한 머리에 헤어진 누더기를 걸친 의젓하고 얼굴에 거룩한 기품이 감돌며 눈빛이 빛나는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어보고 그가 출가한 사문(沙門)임을 알았다.

이상과 같은 인생을 보고 그 고뇌를 풀고자 부왕의 지극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호화로 운 생활을 버리고 성문을 나섰다. 그 때 나이 29세였다. 그 후 동방의 람마성(藍魔城) 밖 숲 속에서 속복(俗服)을 벗어버리고 남방 비야리 마갈타(摩竭陀)를 지나면서 발가바(跋

13) 조용길 편역, 사다티사 저: 根本佛敎倫理 재판, 불광출판사, 서울 1997, 353쪽

14) 사바세계: 견디며 사는 세계,忍苦하는 世相, Sabhā(娑婆)

15) mamūsyā(人間): 의심하는자, 서양의 man(인간)이 파생됨, 즉 인간을 '의심하며 사는자'란 뜻이다.

16) 싯다르타(석가모니의 어린 시절의 이름 또는 고타마(喬答摩): 인도 북부 설산(雪山) 남쪽 가비라(迦毘羅, Kapila)국의 정반왕(淨飯王, uddodana)과 왕비 마하마야(摩訶摩耶, Mahāmāyā)부인과의 사이에 태자로 룸비니(藍毘尼, Lumbini) 동산에서 태어났다.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걷고 오른 손을 들고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 외쳤다고 한다. 그러나 이레만에 어머니를 여의었다. 당시의 풍습대로 이모 마하파사파제(摩訶波闍波提, Mahā-prajāpati) 부인이 왕비가 되어 태자를 양육하게 되었으며, 그 이모는 후에 최초의 비구니가 된다.

天上天下唯我獨尊은 팔리어로 aggo' ham asmi locassa(나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뜻), 三界皆苦我當安之 이 시구를 석존의 탄생계(誕生偈)라고도 말할 수 있다. 후대에 석가가 신격화되자 태어나면서 '자신은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과거 세상에서 비바시불이 탄생했을 때 이와 비슷한 것을 선언했다고 하지만 후에 석존이 외쳤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중국에 와서 지의(智顓)선사 시대부터 대승적 의미로 모든 존재하는 것은 평등하다는 가치관을 부여하였다고 전한다. 현대의 불교인은 이 시구는 인간성의 존엄성을 나타낸다고 해석함(長阿含經), 나아가 인간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두 그 가치관을 인정한다는 말로 확대해석하고 있다.

17) 金容雲: 불교의 카오스 이론, 한국불교의 좌표, 緣園스님 古稀紀念學術論叢: 1104-1131, 1997.

18) 불교경전 편찬위원회: 불교경전, 재판, 우리출판사, 1992(불기 2536)

伽婆), 아람가람(阿藍伽藍), 울다라(鬱陀羅) 등의 선인(仙人)을 만나 그들과 함께 6년 동안 고행, 금욕(禁慾)을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이익이 없음을 알고 부타가야(佛陀伽耶)의 보리수(菩提樹, bodhi-druma) 아래 단정히 앉아 사유하여 마침내 크게 깨달아 불타가 되었다. 즉 이때의 깨달음이 사성제(四聖諦) 그것이다. 그 때 나이는 35세, 12월 8일이었다. 불교계에서는 이날을 성도절(成道節)이라 한다.

그 후 첫 번째로 녹야원(鹿野園)에 가서 아야교진여(阿若橋陳如, Añāta-kaundinya) 등 5 사문을 찾아가 교화한 다음 가섭(摩訶迦葉) 사리불(舍利佛) 목건련(目犍練) 등을 제도(濟度)하여 교단을 조직하고, 3년 뒤 부왕을 뵈고 친족을 제도한 다음 이어 마갈타국의 빈비사라(頻婆沙羅), 아사세(阿闍世), 사위국(舍衛國)<sup>19)</sup>의 바사닉(波沙匿, 祇園精舍를 지어 올림)<sup>20)</sup> 왕을 교화하였으며, 북방 쿠쉬나가라(拘尸那揭羅, Kusinagara)성 밖 발제하(跋提河) 언덕 사라쌍수(沙羅雙樹) 아래 누워 최후의 교계(教誡)<sup>21)</sup>를 하시면서 45년간의 전도생활을 마치고 2월 15일 밤중에 열반(涅槃, nirvāna)에 드시니 세수(歲壽)는 80이었다.<sup>22)</sup>

오늘의 불기(佛紀)는 화신불(化身佛)<sup>23)</sup>인 석가의 열반한 해를 기원(紀元)으로 하고 있다. 그의 교리를 떠나가는 데에는 각각 특징 지워진 10대제자(十大弟子)<sup>24)</sup>가 있다. 그들에게 두 사람이 함께 가지 말고, 처음도 중간도 끝도 최선을 당부하는 자상함을 보이

19) 사위국: Śrāvastī, 실라벌(室羅筏), 중인도의 교살라국의 도성(都城), 사위를 나라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의 교살라국과 구별하기 위하여 성의 이름을 나라 이름으로 한 것.

20) 기원정사: 사위국 바사닉왕의 주장리(主藏吏)이며 대부호였던 수달다(須達多)가 부처님께 지어 올린 정사. 여기서 많은 설법이 이루어졌으며 또 가난한 이에게 시혜를 많이 하던 곳, 그 부지가 바사닉 왕의 기타(祇陀, Jeta) 태자의 임원(林園, 祇樹給孤獨園)에 세워졌기 때문에 기원(祇園)이라 한다. 원래 7층건물, 현장(玄奘)이 7세기에 방문하였을 때 이미 황폐해져 있었다고 함.

21) 최후의 교계: 부처님 열반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법등명 자등명.

22) 부처님이 입멸하실 때 아난(阿難)존자에게 말했다. "내 나이 80, 마치 늙은 수레를 방편으로 의지하여 가면 설사 일 겁이라도 더 살 수 있으나 중생의 복덕을 위하여 100년의 명을 80으로 줄여 가고자한다" 그 때 마왕(魔王) 파순(波旬, pāpīan)이 나타나 "그 때가 바로 이 때이니 빨리 죽음을 선택하라" 하자 부처님께서는 "파순아 부처는 스스로 그 때를 안다. 나는 지금으로부터 3개월 뒤 말라국의 발생지인 쿠시나가라의 사라(沙羅)쌍수(雙樹) 사이에서 달 밝은 밤에 가겠다" 고 하였다. 그후 과연 부처님은 때를 알고 말라국(末羅國, manas)의 수도 쿠시나가라에서 그의 예언대로 떠났다.

23) 화신불: 칠불(七佛) 중의 한 분으로 수행이 높은 분에게 나타나는 응신불(應身佛)이라고도 함.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 깨달음을 얻은 이후의 고타마 싯다르타를 가리키는 이름)을 지칭함. 부처님의 삼신(身: 自性身 受用身 變化身)의 하나로 중생을 교화 구제하려고 부처님 자신이 중생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나타난 것을 말한다. 산스크리트 어로 mīmāṇa-kāya 라고 함. BC 623년 음 4월 8일에 인도의 카비라 성에서 왕자로 탄생하여 BC 544년에 열반에 드셨다. 대승에서는 석가모니 불 외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칠불은 다음과 같다. 과거 칠불, 석존 이전의 6불, 비바시불(毘婆尸佛, 팔어 Vipaśyinū), 시기불(尸棄佛, Śkin), 비사부불(毘舍浮佛, Veśabhū), 구류손불(拘留孫佛, Krakucchanda), 구나함모니불(拘那含牟尼佛, Konagamā), 가섭불(迦葉佛, Kāśyapa)에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을 더해 7불이라고 함. 이 중에 전 3자를 과거莊嚴劫(過去莊嚴劫)의 삼불(三佛), 후 4자를 현재현겁(現在現劫)의 사불(四佛)이라고 함.

며, 이발사 우파리와 똥 푸는 니이티의 출가를 허락하여 평등성을 보였으며, 병든 비구의 몸을 닦아주시는 인애(仁愛), 앙굴마라(央闍摩羅 Angulimalā)<sup>24)</sup>를 용서하고 교화하는 슬기, 춘다<sup>25)</sup>의 공양을 받으시고 병고 속에서도 춘다를 위로하시는 모습, 마지막 열반의 순간에도 수발다라(善賢)를 깨닫게 해주시는 정성스러운 거룩한 모습을 보이셨다.

## 2) 사성제(四聖諦)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붓다가 6년간의 고행 끝에 실존의 아픔에 대하여 보리수 하에서 좌선하며 얻은 해답이다. 이것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고(苦)·집(集)·멸(滅)·도(道), 즉 사성제이다. 이 원리를 기초로 하여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쳐 구제하기 위하여 녹야원(鹿野苑)의 첫 강설부터 사라쌍수 밑에서의 최후의 교계까지 45년간 84,000여 경(八萬大藏經)에 이른다.

**고:** 사고(四苦) 또는 팔고(八苦)로 구별한다.<sup>27)</sup> 싯다르타께서 출가 수도하신 동기가 바로 이 고통에 있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영원히 괴로움을 없애는 그 길을 찾자!]

**집:** 고의 원인이다. 무명(無明)이 그 근본이다. 무명은 지혜가 없어서 옳은 판단을 못하는 것이다.

**멸:** 고통 없애는 경지로 모든 번뇌(煩惱)<sup>28)</sup>가 없어지고, 옳지 못한 행동이 없어지고, 모

24) 십대제자: 두타(頭陀)의 제일 마하가섭(摩訶迦葉), 다문(多聞)의 제일 아난(阿難), 지혜(知慧)의 제일 사리불(舍利佛),神通(神通)의 제일 목건련(目犍連), 천안(天眼)의 제일 아나율(阿那律), 해공(解空)의 제일 수보리(須菩提), 설법(說法)의 제일 부루나(富樓那), 논외(論議)의 제일 가전연(迦旃延), 지율(持律)의 제일 우바리(優婆離), 밀행(密行)의 제일 나후라(羅睺羅).

25) 앙굴마라: 12세에 마니 발타라 바라문을 스승으로 섬기다가 스승이 출타하였을 때 스승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였다가 모함을 당하여 스승으로부터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1,000명을 죽여 1,000의 손가락을 가지고 돌아오면 법을 알려주겠다고 하여 앙굴마라는 999 사람을 죽였는데 마지막으로 친어머니를 만나 죽이려 하였다. 그러다가 부처님을 만나 정법을 듣고 귀의하였다.

26) 춘다: 대장쟁이의 아들로 비구가 된 사람으로 부처님이 쿠쉬나가라로 가시기 전 2월 14일에 드렸던 파야바 성에 있는 망고 숲 동산의 주인이다. 그는 15일 아침 공양에 부처님을 초청하여 정성을 다하여 만든 전다향나무 버섯요리를 올린다. 이 요리를 드시고 심한 복통을 일으켜 쿠쉬나가라로 가서 사라쌍수 밑에서 머리를 복으로 하고 열반에 드신다. 이날을 열반일이라 한다.

27) 사고 팔고(四苦 八苦): 생(生 태어나는 것), 노(老 죽는 것), 병(病 아픈 것), 사(死 죽는 것), 이상이 4가지 고통이고 여기에 애별리(愛別離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 원증회(怨憎會 원수우 만나는 것), 구부득(求不得 얻고자 하는 것을 못 얻는 것), 오음성(五陰盛 신체의 본능이 성하는 것)을 더하면 8고가 된다.

28) 번뇌: 나쁜 마음의 작용. 번뇌(煩惱)의 뜻. 몸과 마음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히는 정신작용. 그 종류가 많다는 뜻으로 108 번뇌라는 조어(造語)가 생겼다. 百八結이라고도 함. 2가지 설이 있다. ① 6근(六根)으로 6진(六塵)을 대할 때 호(好) 오(惡) 평등(平等)의 3가지가 서로 같지 않아서 18번뇌를 일으키고 또 고(苦) 낙(樂) 사(捨)의 3수(受)가 있어 18 번뇌를 일으키니 모두 합하여 36종인데 이를 3세(世)에 배정하여 108 번뇌가 된다. 6근은 시각기(眼)·청각기(耳)·후각기(鼻)·미각기(舌)·촉각(身, 皮膚)·마음 조절기관(意, 腦); 즉 의지처가 되는 5가지 감각기관과 사유기관을 말하며, 6진은

든 고통이 없어진다.

도: 열반(涅槃, 불교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길이다. 8가지 바른 길(八正道)이 있다.

이러한 苦集滅道를 위한 구도(求道) 수행(修行)의 길을 찾는 진수가 마하반야바라밀 다심경(摩訶般若波羅密多心經)<sup>29)</sup> 약칭 반야심경(般若心經)이고 깨달음의 진수는 금강 반야바라밀경(金剛摩訶般若波羅密經)<sup>30)</sup> 약칭 금강경(金剛經)인 것이다. 불교와 의학 윤리는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면이 강조되어 있어 정신의학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 3) 불교의 생사관(生死觀)

#### (1) 시공(時空)의 개념

불교의 우주관<sup>31)</sup>인十方三世 = 시간적으로 前世 今世 來世, 공간적으로 三界 즉 欲界 色界 無色界)에서 사생(四生)<sup>32)</sup>을 통하여 육도(六道)<sup>33)</sup>를 윤회하는 설(輪回

6경이라고도 말하며 6근의 대상이 되는 색깔(色)·소리(聲)·냄새(香)·맛(味)·접촉할 수 있는 것(觸)·사고의 대상(法)을 말하며 사람의 몸에 들어와 본래의 맑은 마음을 더럽힌다하여 塵이라고 함. 이상 6근과 육진을 十二處라고 한다. ② 3계(界)의 견혹(見惑) 88사(使)에 3계의 수혹(修惑) 10혹과 무참(無慚)·무피(無愧)·혼침(昏沈)·악작(惡作)·뇌(惱)·질(嫉)·도회(悼悔)·수면(睡眠)·분(忿)·부(覆)의 10전(纏)을 더한 것(善見率 4권).

- 29) 摩訶 mahā: 넓고 크다는 뜻. 般若 pāṇā: 지혜라는 뜻. 波羅密多 pāramit: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 여기서 저 언덕이란 이상(理想)의 경지인 불·보살이 닦아 행한 곳을 의미. 心經: 본심·골자·핵심·본질을 일컫는 경(불변의 진리를 기록한 책), 즉 넓고 큰 지혜로서 저 불·보살이 닦은 경지의 언덕에 이른다는, 수행의 근본적인 뜻을 알리는 경이다.
- 30) 金剛 vajra: 깨어지지 않는 견고하다는 뜻. 금강경의 내용은 석존께서 사위국에 있는 기원정사에서 수보리(10대 제자의 한 사람) 등을 위하여 처음에 경계가 공(空)함을 말하고 다음에 혜(慧)가 공(空)함을 말하고 뒤에 보살공(菩薩空)을 밝힌 것으로 공해로써 체(體)를 삼고 일체 무아(無我)의 이치를 말한 것. 깨달음의 최고의 경지를 알리는 경이다.
- 31) 趙慶哲: 불교의 宇宙觀. 한국불교의 좌표. 緣園스님 古稀紀念學術論叢:1083-1103, 1997
- 32) 四生(범어로 catur-yoni): 모든 생명체를 그 출생방식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한 것. 모두 미혹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다. ①태생(胎生, yarāyu-ja)은 인간 야수 등과 같이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 ②난생(卵生, anda-ja)은 새와 같이 알에서 태어나는 것. ③습생(濕生, samsveda-ja)은 벌레 곤충과 같이 습한 곳에서 태어나는 것. ④화생(化生, upapādu-ja)은 천계나 지옥의 중생과 같이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과거의 자신의 업력(業力)에 의하여 홀연히 나타나는 것. 그와 같은 사생은 언제나 육도에 차례로 윤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33) 六道: 天啓·人間·阿修羅·畜生·餓鬼·地獄(8대지옥에 각각 16소의 지옥이 있다.): 천계는 성문(聲聞), 연각(緣覺, 獨覺), 보살(菩薩), 불(佛,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 化身佛 참조). 성문과 연각은 소승불교에 속하며, 독각은 타인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고 오직 혼자 힘으로 나름대로의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을 가르킴. 보살은 대승불교에 속한다. 지옥은 철위산(鐵圍山)을 중심으로 수평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설과 수직으로 층층이 세워져있다는 설이 있다. 철위산은 높이 전후 좌우가 각각 680유순(由旬, yojana: 인도의 거리의 단위, 1유순=약 7 혹은 9 마일, 제왕이 하루에 행군하는 거리, 중국에서는 40리 또는 30리, 고대 중국의 1리는 6町)인데 이와 꼭 같은 산이 하나 더 있어 그 산과 산 사이에는 매우 깊고 어두워서 빛을 찾아볼 수 없다.

說)을 믿는다. 시간적 전세·금세·내세는 과거·현재·미래를 뜻한다. 공간적 3계 중 육계는 가장 밑에 있는 음욕(淫慾)·식욕(食慾), 두 개의 욕심을 가진 생물이 사는 장소이다. 욕심(慾心)이 번성하는 세계, 그 가운데 6도가 있고, 육계의 천상(神)을 6욕천(欲天)<sup>34</sup>과 지표(四洲)<sup>35</sup>, 지하(八地獄)<sup>36</sup>로 구별한다. 색계는 욕망이 성하지 않는 곳, 맑고 깨끗한 물질로 성립되는 세계로 남녀의 구별 없이 광명을 식(食)으로 하고 언어로 하는, 육계의 위에 있는 천계인데 거기에는 초선(初禪)<sup>37</sup> 이선(二禪)<sup>38</sup> 삼선(三禪)<sup>39</sup> 사선(四禪)<sup>40</sup>이 있다. 무색계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 물질을 초월하는 세계, 육체를 갖지 않고 정신적 요소만으로 되는 세계, 즉 오온(五蘊skandha)<sup>41</sup> 중 색(色)이 없는 수상행식(受想行識)만으로 이루는 세계인데 거기에는 4가지 영역이 있다고 한다. ① 공무변처(空無邊處, 허공과 같이 가없는 무변이라고 깨닫는 경지) ② 식무변처(識無邊處, 식이

34) 6欲天: 사천왕천(四天王天) = 육계 6천의 1. 수미산의 중복(中腹)에 위치한 해발 4만 유순에 있는 네 하늘. 동쪽에 지국천(持國天), 남쪽에 증장천(增長天), 서쪽에 광목천(光目天), 북쪽에 다문천(多聞天) = 비사문천(毘沙門天), 키: 반유순(半由旬), 수명 500세(1주아가 인간의 50세), 이 사천왕은 33천(忉利天)의 주인 제석천(帝釋天, 인드라 Indra 신)을 섬기며 8부 귀신을 지배하여 불법(佛法)에 귀의한 이들을 보호한다함. 도리천(兜利天) = 육계 6천 중 두 번째, 수미산정에 있고 제석천(帝釋天)이 여기에 산다. 33천이라고 한역. 사방에 봉우리가 있고 봉우리마다 8천이 있어 제석천과 합해서 33천이다. 수야마천(須夜摩天) = 육계 6천 중 세 번째, 영천(炎天) 또는 야마천(夜摩天)이라고도 함. 시분(時分)을 알아 오욕(五欲)의 즐거움을 받는다. 그 하루밤 하루낮은 인간세계의 200년에 해당되며 2,000세의 수명을 유지한다고 함. 도술천(兜率天) = 육천 중 제4천, 민족사기다의 의미로 묘족(妙)으로 한역됨. 이 하늘의 내원(內院)은 장래 부처가 될 보살의 주거지로 일컬어짐. 석존도 여기서 수행하고 현재 미륵보살도 이곳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함. 화락천(化樂天) = 육욕천의 5. 이 하늘에 나면 자기의 대경(對境)을 변화하여 오락(娛樂)의 경계로 삼게 되므로 이렇게 이름한다. 도솔천의 위요 타화재천의 아래다.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 = 육욕천의 여섯 번째, 이 하늘에 태어난 것은 다른 하늘의 화작(化作)한 목경(목경: 욕망의 대상)을 자재(自在)로 수용하여 즐거움을 받는다고 함, 육계천의 최고 장소.

35) 구루주(俱盧洲), 우대주(牛貨洲), 승신주(勝身洲), 섬부주(瞻部洲)

36) 8대지옥의 명칭은 아비무간(阿鼻無間)지옥, 극열(極熱)지옥, 염열(炎熱)지옥, 대규(大叫)지옥, 호규(號叫)지옥, 중합(衆合)지옥, 흑승(黑繩)지옥, 등활(等活)지옥, 16소지옥의 명칭은 흑운사(黑雲沙)지옥, 분시니(糞尸尼)지옥, 오차(五叉)지옥, 기아(飢餓)지옥, 초갈(招喝)지옥, 농혈(膿血)지옥, 일동부(一銅釜)지옥, 다동부(多銅釜)지옥, 철애(鐵砲)지옥, 함량(函量)지옥, 계(雞)지옥, 회하(灰河)지옥, 작질(斫截)지옥, 검엽(劍葉)지옥, 호랑(虎獠)지옥, 한빙(寒氷)지옥, 합해서 136개소나 된다. 다만 이상과 같은 지옥이 지구의 땅속이 아니고 심지(心地)인 것을 알아야한다.

37) 범중천(梵衆天), 범보천(梵輔天), 대범천(大梵天).

38) 소광천(少光天), 무량광천(無量光天), 극광정천(極光淨天).

39) 소정천(少淨天), 무량정천(無量淨天), 편정천(遍淨天).

40) 무운천(無雲天), 복생천(福生天), 광과천(廣果天), 무번천(無煩天), 무열천(無熱天), 선현천(善現天), 선견천(善見天), 색구경천(色究竟天), 이상 8천(天)

41) 오온: 집적(集積)의 뜻, 모든 존재를 5개의 모임의 관계에 두고 보는 견해; 물질성(色)·감각(受)·표상(想)·의지적 형성력(行)·인식작용(識), 즉 색은 물질 일반, 신체 물질성: 뜻은 감수작용으로 감각·등순 지각을 말함;想了 마음에 떠오르는 상(表象作用); 行은 의지 혹은 충동적 욕구에 해당되는 마음의 작용(潛在的 形成力); 識은 식별작용 또 의식 그 자체나 마음의 활동을 말함.

무변이라고 깨닫는 경지) ③ 무소유처(無所有處, 아무 것도 없는 것을 깨닫는 경지) ④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경지). 그리고 그 위에 불계(佛界)가 있다.

### (2) 생명의 본질과 현상계(現象界)

그 생명의 본질을 인간들은 영혼이라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생명의 본질에 대하여 배도원<sup>42)</sup> 큰스님은 비유적 예를 들어 물의 본질이 H<sub>2</sub>O 인 것처럼 생명의 본질이라는 게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물이 얼면 얼음이 되고, 증발하면 수증기가 되어도 그 본질인 H<sub>2</sub>O는 변함이 없듯, 인간(모든 생명체)의 영혼도 삼세를 거치지만 그 영혼에는 변함이 없이 영원 불멸(不滅)하다고 덧붙였다.

현상계에서의 자연사 중에서 곤충들이 탈바꿈(알→유충→번데기→성충)을 하고, 양서류의 하나인 개구리가 성장하면서 그 모양을 달리하고(알→올챙이→개구리) 그 모양을 바꿀 때마다 바로 직전의 상태를 모르고 지내니 우리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는 말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도 위와 같은 자연사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정자와 난자가 합할 때가 태생(胎生)이 되는 것이며 이를하여 접합자이다. 이 접합자가 모체의 자궁내의 양수(羊水)에서 태아로 성장하여 햇빛을 받으며 대기를 마시고 고고성(呱呱聲)을 올리면 출생(出生)이라 하고, 그후 신생아·유아·학동기·사춘기·청년·장년·노년기라는 과정을 견게 된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죽는다(生者必滅).

### (3) 수명은 어떤 것인가?

다만 금세를 거칠 때에 그 출생 방식(四生으로 분류함)에 따라 어떤 탈을 쓰고 나타난 현상을 현상계라고 하고 그것은 또 각각 욕도(三善·三惡)를 걷는다고 한다. 그리고 그 길 중 인간적 현상계의 시작을 출생(出生)이라 하고 그 끝을 죽음 또는 열반(涅槃)이라고 한다. 현상계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을 수명(壽命)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현상계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을 수명이라고 한다면 그 장단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인명(人命)은 재천(在天)이란 말대로 날 때부터 정해진 것인가? 의학자는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노력하고 있다.

우리들의 염원은 건강하게 불로장수(不老長壽)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 빌고 하나님께 빈다. 그러나 수(壽)와 명(命)은 같지 않고 엄격하게 다르다고 한다.<sup>43)</sup> 수는 자

42) 배도원 스님, 개별법문, 파계사 대비암.

43) 한정섭: 금강선원 이사장: 壽와 命, 월간 불교 98년 6월호 52-53 쪽

기의 의지에 따라 늘려 가는 것이고, 명은 전생부터 지은 업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 한다.

가령 전생록(前生錄)에 “너의 수명은 80이요 풍과 담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하였다면 그 사람은 전생에 80을 살 인연을 짓고 풍과 담으로 인하여 목숨을 마치게 되나 세상을 살면서 풍과 담을 예방하고 명이 불어나도록 마음에서 우러나 방생(放生)하고 보시(布施)하면 그 기쁨 때문에 풍과 담은 없어지고 그의 명이 90이나 100세로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명이 100세 장수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 의지에 의하여 목숨을 중생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하면 류관순, 안중근, 석가모니, 예수처럼, 장수 정명(定命)을 받은 사람이라도 15·6세에 갈 수 있고, 3·40에 떠날 수 있으며 달마<sup>44)</sup>대사처럼 연장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수는 자기 의지에 따라 명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것이고, 명은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것이니 누구나 함부로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욕·진·심·사(欲進心思)와 같은 4신조를 닦음으로써 명을 생각에 따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하였다.

#### (4) 우리 민족의 생사관

근본적인 무너지지 않는 불법(佛法)의 바탕에서 왔지만 그 생사관이 시대에 따라 강조(強調)하는 점이 변천하는 것이 여실하다. 박정진<sup>45)</sup>스님의 한국인의 생사관을 신라와 고려를 중심으로 연구한 논문의 결론을 간단히 소개한다.

신라 시대 민중(民衆)의 생사관은 왕생(往生)과 현세의 이익(利益)이 그 궁극(窮極) 과제(課題)인 데 대하여 원효(元曉)의 생사관은 현세에서의 깨달음(悟)이었고 무애적 교화(無碍的教化)가 궁극과제였다. 고려시대의 선승(禪僧)의 생사관은 확철대오(廓徹大悟)와 사생해결(死生解決)이 그 궁극과제였다.

그래서 말하자면 고구려·백제·신라의 승려(僧侶)는 소은(小隱) 중에 서방(西方)왕생(往生)을 염원하는 내세중심주의(來世中心主義)였는데 대하여 고려의 일연(一然)의

44) 달마: 보리유지(菩提流支)와 광통율사(光通律師)의 질투로 그의 제자들에게 독약을 타서 죽이도록 하였으나 세 번 네 번 독을 뒹어도 몸이 독을 받지 아니하므로 죽지 않다가 마침내 혜가에게 법을 전하고 그대로 앉아 떠났다. 그 후 3년 뒤 다시 시해선인(屍解仙人)이 되어 인도로 떠날 일이 있으니 이로써 보면 명과 수는 같으면서도 서로 다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달마대사는 중국 남북조시대의 선승(禪僧)으로 중국 선종의 시조이다. 그는 남인도의 황지국의 셋째 왕자로 태어나 대승불교의 승려가 돼 선에 통달하여 반야다라(般若多羅) 존자의 법통을 이은 뒤 배를 타고 긴 항해를 하여 땡골 만을 건너 중국 광둥(廣東)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금의 남경인 금릉에 가서 양무제(楊武帝, 德號 佛心天子)를 만났다. 그때 나이가 130세였다고 함. 양부제의 공덕을 무공덕(無功德)이라는 일화를 남기고 양자강을 건너 위나라 소림산에서 9년간 면벽(面壁)의 침묵을 시작하였다. 사람의 본래의 청정하다는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 선법을 혜가(慧可)에게 전수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 선종의 시조로 숭앙하였다.

45) 朴正眞: 韓國의 死生觀 연구, 新羅·高麗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174쪽 1998

입장은 소은 중에 귀세간적이타행(歸世間的利他行)을 강조하는 현세중심주의(現世中心主義)였다.

금세기에는 정성본<sup>46)</sup>스님은 생사해탈(生死解脫) 또는 생사자유(生死自由)를 동행본 육조단경(六祖壇經)의 홍인, 혜능 등 고승의 말씀과 안반수의경(安般守意經), 칠불통계계(七佛通誡偈),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등의 예를 들고 불법은 육체나 현상법을 문제로 삼아 자기가 깨닫고 육체적인 생사해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심법(心法)을 깨닫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사랑분별(思量分別)과 생사번뇌(生死煩惱)를 초월하는 것**이며, 만약 육체적인 현상법을 생사해탈하려고 불법을 닦으려 한다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즉 생각이 일어나면 생(生)이고 생각이 없어지면 사(死)이며 번뇌의 생멸(生滅)과 같은 뜻이라고 한다.

### 3. 초기(原始) 불교의 윤리 사상과 현대적 접근

법해<sup>47)</sup>스님의 불교윤리학론집에서 다음과 같이 요점을 정리해 본다.

붓다는 정각(正覺)을 증득(證得)하여 사람들에게 무차별 평등의 정신을 기본(天上天下 唯我獨尊)으로 하여 법을 설하였으며 또한 교단을 구성하였다. 힌두교의 바라문을 정점으로 하는 카스트 4성(四姓) 계급제도<sup>48)</sup>에 대하여 불교는 인간은 태어나면서 계급이나 남녀의 구별, 귀천에 관계없이 완전히 평등하다는 근본적인 견지에서 계급제도를 부정하였다. 인간의 가치는 내면적인 마음의 자세와 외면적인 행위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 1) 윤리적 특성:

붓다(Buddha, 佛)의 언행은 모두 근대적 합리성으로 가득차 있고 미신적 사고를 극력 배제하고 있다.

- (1) 이성적 특성: 정신적인 죄악의 더러움은 물질적인 것에 의해 결정될 수 없으며, 오직 올바른 수행에 의한 진정한 참회에 의해서만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 설한다.
- (2) 중도적 특성: 고행이나 욕락(欲樂)과 같은 극단을 피하고 심신의 조화를 얻는 중도의 길이어야 한다. 중도는 모든 대립과 분쟁을 극복하여 화합으로 지양(止揚)시키는 말로서 그 사상은 연기(緣起) 공관(空觀)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46) 정성본(동국대 경주캠퍼스 행정각 원장): 생사해탈, 정각도량, 47호: 5쪽, 불기 2543(1999)

47) 최법해(崔法慧): 불교윤리학론집, 고운사 본말사교육연구소원 법공양판 1996

48) 四姓階級制度: 힌두교의 계급제도; 바라문(승려와 승려의 자손), 크샤트리아(武士), 바이샤(상인 농민 직공), 수드라(奴隸)

(3) 실천적 특성: 사람들의 무지(無知)와 고(苦)를 없애 주는 일이다. 좋은 일은 하고 난 뒤에 뇌우침이 없다.

(4) 연기설(緣起說)의 대두: 모든 현상계는 업연(業緣)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연기 공관을 살펴보자**. 부처님의 출현 이전에도 현상계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설, 우연설 등의 학설이 있었지만 만족할 만한 설이 못되어 **붓다는 인연설을 주창하고 12가지 연기로 설명**한다.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진수요 가르침의 요체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진 법계의 끝없는 연기법칙(緣起法則)이 여기에 기초하여 나타난 것이며 모든 것이 인연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업(業): 증생이 제 자유의지(自由意志)<sup>49)</sup>에 의하여 행동하는 것.

연(緣): 그 업과 어울리는 모든 조건(條件).

이것을 다시 인(因), 연(緣), 과(果)로 설명한다.

예를 들면

① 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原因), 식물에 비유하면 씨(種子)이다.

연: 인을 돕는 종인(從因), 씨에서 싹이 트게 하는 조건(흙 물 햇빛 공기)이다.

과: 인과 연으로 생기는 결과(結果), 성장해서 맺는 열매이다.

② 또 다른 예를 들면 바닷물은 인이고, 바람은緣이며, 파도는 과일이다.

**십이연기(十二緣起)**: 연기는 12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잡아함경(雜阿含經)에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此有故彼有 此起故彼起)고 하였다. 모든 현상은 상대성이 있다고 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49) 이기적인 행동(惡業)은 괴로움(苦果)을 초래하고 이타적인 행동(善業)은 즐거움(樂果)을 초래한다는 법칙을 인간에게 깨우침으로써, 자발적으로 지악천선(止惡遷善)의 결의를 하게 한다. 이러한 결의는 의지에 자유가 있기에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자유의지를 동일한 자극(因)에 의한 동일한(必然) 반응(果)을 보이는 무생물과 같은 자연물처럼 인간에서 기대한다면 의지결정론적 견해는 인간을 물질적인 존재(自然物)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최법해: 불교윤리학론집, 고운사 본말사교육연구소원 법공양판, 308쪽, 1996)

자유(自由)라는 개념에 대해 여러 종교와 사상가들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부처님 당시 인도 종교의 세계관을 크게 ①존우화작인론(尊化作因論) ②숙작인론(宿作因論) ③무인무연론(無因無緣論)의 셋으로 나눈다. 첫째는 일가 신에 의해 창조 지배되고 있다는 브라미니즘(Brahmanism)이고 둘째 것은 과거 업에 의한다는 자이니즘(Jainism)이고, 셋째 것은 그런 제 1 원인을 부정하는 사문(沙門)들의 사상이다. 그러나 이상 철학은 어느 것이나 인간의 죄악을 설명하기 어렵다. 죄악도 궁극적으로는 그런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로 동시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부정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위 세 가지 학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브라미니즘의 우파니샤드(upanisad)철학은 인간의 정신적 자아(自我 Jiva-atman)는 브라만(sat 有)에서 온다고 하고, 자이니즘의 오실체설(五實體說, 精神, 物質, 法, 非法, 虛空)도 정신에는 의지가 있다고 설하고 있다. 이러한 근본 교설상에 자가당착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성에서 부처님은 그러한 사상을 진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래서 이상의 전통적인 종교관념을 과감히 청산함으로써 자유의지를 확립 시키려는 것이다. 십이처설(十二處說)에서 인간의 주체(第六根)를 의지라고 규정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최법해: 불교윤리학론집, 고운사 본말사교육연구소원 법공양판, 306-308쪽, 1996).

- i 근본무지(根本無知=無明)로 말미암아
- ii 맹목적 행동(盲目的行動=行)이 일어나고
- iii 정신작용(精神作用=識)이 일어나고
- iv 마음과 물질(名色)이 있게 되고
- v 감각기능(六入)이 있고
- vi 접촉(接觸)이 있고
- vii 감수(感受=受)가 있고
- viii 욕망(愛)이 있고
- ix 집착(取)이 있고
- x 생존(生存)이 있고
- xi 태어남(生)이 있고
- xii 늙어 죽음(老死)이 있다는 것이다.

무명에서 번뇌가 업연 따라 생기므로 번뇌를 없애려면 그 12연기 하나 하나를 없애거나 그 연결고리를 차단하면 된다는 이론이 성립된다. 연기법칙의 실존적 삶의 실천이 중도(中道)이다. 의학적 소견으로 설명하면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반응과 같은 것이라 하겠다.

연기설의 근본이 되는 무지(無知)를 법산<sup>50</sup> 스님은 위빠싸나(수행법)의 머리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에 보다 가깝게 설명하고 있다. 즉 가장 많이 접하는 무지란 첫째 전체 아닌 부분적인 지혜에 묶여 있고, 둘째 부분적인 지혜나마 뒤죽박죽 뒤엎혀 있어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적립되어 있지 못하고, 셋째 경험적인 지혜가 아닌 관념적인 지혜에 얽매어 있음을 의미한다.

## 2) 일반적 윤리관

### (1) 믿음의 윤리

믿음의 실천 윤리는 4불괴정(四不壞淨, 四證淨)의 신앙이다. 즉 불·법·승·성계(佛·法·僧·聖戒) 4가지에 대한 무너지지 않는 절대 확실하고 깨끗한 믿음을 뜻한다. 실천적 수행 윤리는 믿음이 바탕되어야 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미 도달한 자에게는 깨달음으로 나타나게 된다.

### (2) 3론(論)의 윤리

시·계·생천(施·戒·生天)의 3론(論)에 대한 가르침이다.

- ① 시(布施): 지계(持戒)와 더불어 초기경전에 끊임없이 강조되는 윤리 덕목으로 그 정신적 기반은 4무량심(無量心, 慈悲喜捨)이다. 사랑을 慈(maitri)라고 하는 데 된 뜻은 우정(友情)이라고 한다. 悲(karuna)는 남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처럼 여김, 喜(mudita)는 남의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처럼, 捨(upeksha)는 남이 비록 나의 뜻을 몰라주어도 평정을 잃지 않는 마음이다. 일체 중생을 진정한 친우로 보고 무엇이나 베풀고(布施), 그와 함께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愛語), 이익을 주며(利行), 함께 일하는(同事) 행동이 수반될 것은 당연한데, 이를 4섭법

50) 법산 스님: 부처님의 수행법 위빠싸나(vipassana) 33일, 우리출판사, 서울: 2쪽, 2543(1999).

(攝法, samgraha)이라 하여 중요한 윤리적 수행 덕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기본 계율(戒律): 오계(五戒)와 팔재계(八齋戒).

재가 수행자에게는 다음 5계를 강조한다.

- i. 살생하지 말라(不殺生)
- ii. 도둑질하지 말라(不偷盜)
- iii. 사음하지 말라(不邪淫)
- iv. 거짓말하지 말라(不妄語)
- v. 술 마시지 말라(不飲酒)

출가 초년 수련자에게는 다음 3가지를 추가하여 8재계를 강조한다.

- vi. 때가 아니면 먹지를 말라(離非時食)
- vii. 몸에 사치한 치장을 하지 말라(離歌舞觀聽香油塗身)
- viii. 높고 큰 자리에 앉지 말라(離高廣大床)

③ 생천(生天): 다시 태어나기 위해 찾아가는 길로 팔정도(八正道)를 제시한다.

- i. 정견(正見): 사견(邪見)을 버리고 바른 소견으로 바로 보는 것
- ii. 정사유(正思惟):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
- iii. 정어(正語): 말을 바르게 하라는 것, 거짓말 이간질 등을 말 것
- iv. 정업(正業): 마음을 바로 하고 기거동작을 바르게 하는 것
- v. 정명(正命): 바른 생활을 하는 것
- vi. 정정진(正精進): 바르게 노력하는 것
- vii. 정념(正念): 바른 진리를 망각하지 않도록 항상 기억하여 생각하는 것
- viii. 정정(正定): 흩어지는 마음을 고요히 맑고 밝고 또렷하게 안정하는 것

### 3) 가정적 생활 윤리

#### (1) 가정 윤리

##### ① 부부간의 윤리

‘싱갈라에 대한 교훈’에 의하면

· 남편은 5가지로 처자를 공경하고 사랑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아내에 대해 경의를 갖고                      둘째 경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며

셋째 스스로 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넷째 권위를 부여하여 주며

다섯째 장식품을 제공하여 줌으로 아내에게 봉사하여야 한다.

· 남편에 대한 아내의 윤리

첫째 일을 잘하고                                      둘째 집안 식구들을 잘 대우하며

셋째 스스로 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넷째 모든 재산을 보호하고

다섯째 해야할 일에 대해서 교묘하게 하며 또한 생활의 근면함을 잘 지킨다.

##### ② 부모와 자녀간의 윤리

부(父)에 대한 의무나 복종을 설하는 것보다 오히려 부모에 대한 존경과 부양(扶養)을 자의(自意)적으로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싱갈라에 대한 교훈'에서

· 부모에 대하여 자녀로서 지켜야할 덕목.<sup>51)</sup>

첫째 길러주셨으므로 양친을 받들어 모시겠다(報恩의 精神).

둘째 그분들을 위해 해야할 일을 하겠다.

셋째 가계(家系)를 존속시키겠다.

넷째 재산을 상속받겠다.

다섯째 선조에 대하여 적당한 때마다 공물(供物)을 올리겠다(祖上崇拜思想).

· 부모은중경<sup>52)</sup>: 부모의 은혜가 넓고 깊음을 설명하는 경전으로, 불설대보은중경(佛說大報恩重經)이라고도 한다. 순 한문으로 된 서로 다른 책이 몇 종류가 있으나 대부분이 위경(僞經)이며, 우리 나라에서 언해(諺解)한 언해본도 여러 종류가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1553년(명종 8년) 장단 화장사(華藏寺)에서 간행한 화장사판으로 여기에는 삽화도 들어있다고 한다.

#### (2) 사회 윤리

은(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만 그것은 상하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상호 화합의 관계라 할 수 있다.

#### (3) 경제 윤리

출가 수행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무소유의 정신으로 물질을 떠난 생활을 규정하였으나 재가자에 대하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현세적인 재산을 얻고 지키도록 하였다.

### 4) 현대적 윤리사상

법혜<sup>53)</sup> 스님은 김태길<sup>54)</sup> 교수, 고익진 교수 등의 윤리학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불교윤리는 현실적 사실과 논증을 중요시하는 현대윤리학의 기본 입장에 통하는 바가 있다. 불교는 당시 인도의 여러 종교에서 주장하는 궁극적인 진리가 서로 엇갈림을 회의(懷疑)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현실세계를 중요시하고

51) 반포지효(反哺之孝)라는 말을 상기하자. 까마귀도 성장하면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는 말이다. 이러한 말의 여부를 보기 위해 까마귀의 행태(行態)를 살펴 확인한 어린 시절이 생각난다. 1940년대만 해도 까마귀가 수없이 많아 해조(害鳥) 또는 흉조(凶兆)로 여기었으나 요즘은 눈에 잘 띄이지 않는다.

52) 부모은중경: 金吉祥 편저: 불교사전 초판, 흥법원, 서울, 1998

53) 최법혜(崔法慧): 불교윤리학론집, 고운사 본말사교육연구소 법공양판, 305-306쪽, 1996

54) 金泰吉: 倫理學, 攄文社, 서울 1983

있기 때문이다. 불교교리조직의 맨 처음에 위치한 십이처설(十二處說)<sup>55)</sup>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번뇌의 근원인 6근과 6경(진)인 것이다. 여기서 인식 가능한 현실세계를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윤리학이 형이하학적 경험세계에서 확인한 것은 육체적인 동작과 정(情)적인 본능뿐이다. 불교 또한 탐(貪) 진(瞋) 치(癡)에 지배되는 사악한 중생을 발견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윤리학과 통하는 바라 하겠다. 그리고 현대 윤리학이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을 근거로 보편적 행위의 법칙을 추론해 내는 소위 자연주의적 윤리설(naturalistic ethics)과 비슷한 방법으로 불교윤리학은 계속 선악업보(善惡業報)의 법칙을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선악의 윤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을 밝히고 그로부터 정(正)·사(邪)의 윤리를 거쳐 존재의 궁극적 실상을 탐구해 들어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불교윤리는 철저하게 현대적 윤리성을 밀고 나간 것으로 볼 만하다고 하였다.

#### 4. 불교와 의학

얕은 불교적 지식으로는 얼른 이야기할 수 없기에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장인 도업<sup>56)</sup> 스님에게 의견을 들어보았다. 그는 깨달음의 진수인 곱·集·滅·道를 인간의 건강관념으로 풀이하였다. 즉 고는 당지(當知)로 4고·8고 등으로 인한 환자로 비유하고, 집은 당단(當斷)으로 욕망 갈애(渴愛)와 같은 병의 원인으로 보고, 멸은 당증(當證)으로 완치(完治)상태로 보며, 도는 당수(當修)로 팔정도도 재발하지 않는 상태로 풀이하였다. 따라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대명의(大名醫) 중의 명의라고 하였다. 즉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병인(病因)을 규명하고 치료를 잘 하며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의사가 대명의가 아니겠는가 라고 풀이하였다.

필자<sup>57)</sup>는 불교의학의 진로를 정각도량(正覺度量)에서 논한 바 있는데 불교적 의학은 곧 오늘날의 생태학(生態學)적 개념으로 집약, 우리들의 자연환경과 관련하는 학문이란 점에서 중시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좀 더 오래 살아도 될 사람이 어떤 사고나 전염병에 걸려 죽는다면 이것은 곧 억울한 죽음이 될 것이며, 고통 중의 고통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억울한 현상을 자연현상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 같다.

가능하다면 우리들이 염원하는 바대로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보건(保健)과 간병(看病)이 필요한 것

55) 12처: 각주 번뇌 참조

56) 道業: 현재 불교문화대학 학장이며 정각원 원장을 역임, 최근에 화엄경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57) 김두희: 불교의학의 진로, 정각도량, 통권 36호: 13쪽, 불기 2541(1997)

이며, 그러한 보건과 간병을 자연과 더불어 실천해보려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을 곧 불교적 색채를 띤 의학(醫學)이라 볼 수 있다. 그 예의 하나로 곧 인도의 요가(Yoga)법<sup>58,59)</sup>을 들 수도 있겠고, 또 음양오행설로 접근하는 한의학,<sup>60)</sup> 중국의 양생학(養生學)<sup>61)</sup> 등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 1) 불전(佛典)에 나타나는 의학적 기록<sup>62)</sup>

불교화한 인도의학이라고 본다. 인도의학은 베다(veda)<sup>63)</sup> 문화에 근거를 두며, 그 중 आयु르 베다(Ayur-veda)<sup>64)</sup>의 영향이 컸다. 고로 불전에 나타난 의학적 기록은 불교화한

58) 요가: 힌두교와 불교에서 파생된 한 종교로서 이 종교적인 철학은 신봉자에게 일련의 훈련을 통해 육체와 마음과 의지의 모든 활동을 억제하여 자아를 해방시킨다는 가르침을 주었다. 실제로 인도의 모든 종교는 물질보다는 정신을 더욱 강조하였다(황상익, 권복규 역: 세계의학의 역사, 한울 아카데미, 서울, 1994).

59) 요가는 '엄매이다' '결합하다' '자신의 주의력을 이끌어 주며, 집중시키며, 그것을 사용하고 응용한다' 등의 의미를 가진다. 인도의 6대 철학체계의 하나로 분류되며 이 지구상의 모든 철학, 종교, 과학 등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또한 요가는 종교는 아니지만 종교적 수행의 한 형태로서 인간의 육체적, 도덕적, 정신적, 영적인 안정을 다루면서 수천 년에 걸쳐 발전되어온 시간을 초월한 삶의 성스러운 과학이다. 결론적으로 요가 수행은 굳이 해탈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심신을 모든 현대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를 지닌다. 요가 수행은 인간이 만든 어떠한 운동이나 과학, 의학보다 우리들의 인체를 자연상태로 되돌리면서 완전한 건강체를 만들어준다. (현천 스님, 히말라야 선원 요가연구소: 요가와 건강, 정각도량, 48호: 10-11쪽, 불기2543(1999)).

60) 음양오행학설: 金鍾錫譯, 河志光 主編, 新中國漢醫學 2版, 裕盛出版社, 大邱: 5-13쪽, 1996

61) 劑占文 主編: 中醫養生學, 上海中醫學院出版社, 上海, 1989

62) 김중명: 의사학 개론, 형설출판사, 대구 1979

63) 曹勇吉 譯 사타티샤 著: 根本佛敎倫理, 불광출판사, 서울 1997 재판 29쪽. 베다(veda): 어원은 비추다(div)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deva'는 산스크리트어로 '神'을 의미하는데 이는 라틴어 'deus'와 동족어이다. 이것은 아리아인들이 인도에 도착하기 전에 신의 개념을 자연의 빛을 내는 힘과 연상시켰음을 나타내 준다. 초기 아리아인들이 그러한 힘을 숭배했음은 yaj '숭배'라는 말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말의 기원은 야주르베다(yajurveda)라는 제목에서 베다어 yaj '희생하다'를 볼 수 있다. 그러나 業(karma)이라는 개념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에 대한 신의 권위가 없어지게 되자 신의 가치는 수정되었다. 불교에서는 '데바'를 신으로 여길 때는 이는 보통 인간들보다 우월한 의미에서만 가능하다. 반면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은 대체로 시적인 상상력에서 나오는 것과 유사한데 그 위치는 관계된 자연현상의 중요성에 일치하고 있으며, 신들은 그들의 정신적인 성숙 정도에 따라 분명한 등급으로 존재한다. '매옥의 세계(Kāmaloka)'에서 6개 등급이 있고, '수수물질의 세계(rūpaloka)'에서는 4개의 등급이 있으며 '무색계(arūpaloka)'에 역시 4개의 등급이 있다. 존재는 그 영역에 따라 결정된다. 인도의 종교에서 그러한 심적 상태들은 禪(Jhāna) 혹은 선의 상태로 알려져 있다. 그것들은 종종 불교경전에서 기술되어 있다(長阿含經의 9부).

64) 황상익, 권복규 옮김(라이언즈 펠트루첼리 지음), 세계의학의 역사, 한울, 서울, 101쪽, 1994. 야주르 베다: 아리아인(Aryan)의 오래된 찬가(讚歌), 기도(祈禱), 가르침의 책이다. 인도의 종교적 도덕적 규범의 대부분이 이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야주르 베다)나 (사마 베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리그 베다)는 거의 완전히 종교적인 것이었다. (아트르바 베다)는 역시 방법을 하기 위한 주술이기도 했지만 病, 負債, 飢餓, 飢餓한 精神, 健康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आयु르 베다 의학은 이와 같이 웅대한 양의 문헌에 입각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베다와 나중에 나타난 註釋書(브라흐마나, 아라나카, 우파니사트) 뿐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대량의 의학문서도 포함되어 있다. 여러 저자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는 AD 1세기의 차라카(Charaka)와 AD 4세기의 스술타(Sushruta), 바그바타

인도의학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 보살행(菩薩行)

보살(菩薩bodhisattva)<sup>65</sup>이 되기 위해서는 8정도를 닦으며 열반에 이르기까지 계(戒)와 행(行)을 쌓고, 경·론·율(經論律)의 삼장(三藏)에 통하고 오명(五明)<sup>66</sup>에도 밝아야 하는데 그 오명 중에 醫方明(Chikits vidyā)이라는 것이 있다. 따라서 인도에서는 원래 의학은 성스러운 학문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전 Ayur veda(4편의 本集의 veda 외에 속편의 veda이며 뜻은 생명에 관한 지식)는 인도 의학의 근원이다. 8분과로 나누어 8分醫方(astānga-āyur-vido)이라고 한다.

- |                                |                                  |
|--------------------------------|----------------------------------|
| ① 외상과 외과 질환의 치료법(Shalya)       | ② 외과 분술(分術, Shalakyā)            |
| ③ 내과(Kaya-chikista)            | ④ 정신과요법(Bhuta-vidyā)             |
| ⑤ 소아과(Kdumara-bhritya)         | ⑥ 약물론(藥物論, Agada-tantara)        |
| ⑦ 장수약론(長壽藥論, Rasayana-tantara) | ⑧ 강장약론(強壯藥論, Vājīkaraṇa-tantara) |

이런 기록은 불전에는 없는데 석가는 설법 중 필요에 따라 저변의 힌두교 베다의 의학적 지식을 인용하였을 뿐이나 모든 속학(俗學)은 배척하였다는 점에서(大智度論)도 이러한 추측이 가능하다.

(2) 불전(佛典)에서는 구체적인 수행으로 간병(看病)을 제일의 자비로 여긴다. 간병이라 함은 오늘날의 임상의학(臨床醫學)과 간호(看護)업무를 합한 것이다.

佛에 공양을 드리는 것처럼 (범망경 梵網經)

간병하면 공덕은 광대 무변(無邊), 法苑珠林함

간병은 제일의 선행(摩訶僧祇律)

간병을 위한 과계(破戒)는 용서를 받는다(彌沙塞律, 小乘佛敎)

간호인의 자격과 마음가짐을 제시(四分律, 增壹阿含經)

(3) 佛敎敎團의 확대

수용시설 설립—구료사업이 왕성하였다. 무상원(無常院)<sup>67</sup>, 기원정사(祇園精舍)<sup>68</sup>, 녹자모강당(鹿子母講堂)<sup>69</sup> 등은 불전에 종종 나타나며 동양에서의 병원의 시초라고 할

(Vagbhata) 등이다. 그 연대가 더 오래된다는 주장도 있다.

65) 보살: 대승불교와 육도의 천계를 참조

66) 오명(五明): Panchavidya = 성명(문법), 인명(논리학), 내명(불교의 교리), 의방명(의학 약학), 공교명(기술 역법)

67) 무상원: 목숨이 다하려고 하는 병승(病僧)을 두고 무상(無常)을 깨닫게 하는 곳. 기원정사 49 외원(外院) 중의 하나. 정사의 서북쪽에 있으며 중환자를 이 원에 보내어 부처님의 상호를 생각하면서 세상의 집착을 끊고 인라국에 왕생케 하는 곳. 후세의 열반당, 연수당에 해당하는 곳.

68) 역사적 배경 장의 각주에 이미 설명한 바 있다.

69) 녹자모강당: 기원정사의 동쪽에 있던 2층 큰 강당. 임가국의 장자 집에 태어나 시위국 장자 녹자에게

수 있다. 열성 불교신자였던 마우리 왕조의 阿育王(King Asoka, 기원전 273-232)은 한 때 남부를 제외한 전 인도를 영토화하고 영토 내에 병원을 설립(기원전 250)<sup>70)</sup>하였다.

## 2) 불교의 신체관

자연계의 4원소설이 103개의 원소로 분석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3천 대천<sup>71)</sup>의 우주를 논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 \* 불설포태경(佛說胞胎經): 수태(受胎)부터 분만(分娩)까지 정확하게 관찰되어 있고
- \* 대보적경(大寶積經): 대정(大淨)의 집합으로 되어 있으며
- \* 보현행원찬(普賢行願讚): 신체가 地·水·火·風의 四大로 된다고 설하였다.
- \*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360骨 500筋 700細脈 107개의 穴과 관절이 화합할 때 건강하고, 균형을 잃을 때 101가지 병이 생긴다고 하였다.
- \* 대반야경(大般若經): 風·熱·溫 기타의 '원인'으로 발병할 때는 404종의 병이 발생한다고 하였고
- \* 아함경(阿含經): 병인(病因)은 四大不調로 業病과 鬼病이 생긴다고 하였다.
- \* 불설료치경(佛說療痔經): 치료는 기적이나 미신에 의한 것이 아니며, 외과수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 금광명경(金光明經): 약제의 조제법을 설하였다.
- \* 유마거사(維摩居士)<sup>72)</sup>가 질병발생에 대한 이론<sup>73)</sup>을 정립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병에 걸린 듯이 꾸며, 네 가지 원소(地·水·火·風)로 이루어진 몸을 놓고 문병은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였다.<sup>74)</sup> 그러나 사실은 비과학적인 사실 속에 과학이

시집간 비사카(毘舍佉)가 180만금을 내고, 목련을 감독으로 지어 부처님께 바친 것. 남편인 녹자가 비사카의 자비가 어머니와 같다고 불인 별명이 녹자모이다.

70) 阿育王之勅令: 아소카왕(阿育王)의 조칙. 고대인도 마우리아 왕조 제3대 왕. 통치 초기에는 조부(찬드라 굽타) 이래의 영토확장 정책을 추진하여 재위 8년만에 남인도의 일부를 제외한 인도대륙전역을 통일했다. 그러나, 이 무력 전쟁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생긴 것을 알고, 이를 뒤우치고 무력정책을 포기하고 '다르마(Dharma: 法)'에 의한 정치를 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다르마의 이상을 조직으로 포고하고, 관리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그것을 영내 각지의 암벽과 석주에 새기게 했다. 아소카왕의 다르마의 기본은 만인이 지켜야 할 사회 도덕이며, 불살생, 순종, 겸양, 존경, 자비, 자기반성 등의 덕목의 실천이 장려되고 있다. 한편 다르마의 정치 일환으로 도로의 정비, 사람과 가축을 위한 병원의 건설, 우물과 휴양소의 설치 등 여러 가지 사회 사업을 했다.

71) 三千大千: 온 세계, 넓고 넓은 우주

72) 유마(維摩): 비말라키르티(Vimalakirti), 오염이 없고 명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말로 유마경의 주인공 이름. 정명(淨名), 무구칭(無垢稱) 등의 한역명으로도 불린다. 대개는 유마힐(維摩詰) 또는 유마로 불린다.

73) 박용길 역, 유마경: 38-40쪽, 분전간행회 편, 1993

74) 불교의 질병 발생론: 아직도 이러한 기원전 500여 년의 4원소설과 유사한 설법이 유효한 듯, 그 원리는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듯하다.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 3) 三世輪廻 사상 위에 의료관념

三世 즉 전세, 현세, 내세에 각각 특정한 佛, 즉 **아미타불(Amitadha Buddha, 阿彌陀佛<sup>75)</sup> = 無量壽佛**, **석가모니불(Sakyamuni, 釋迦牟尼佛<sup>76)</sup>**, **미륵불(Maitreya, 彌勒佛<sup>77)</sup>**을 설정하고 있다.

이 몸은 실로 무상하며 견고하지 아니하고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하며, 가늘프고 알맹이가 없으며, 허물어지는 것이고 오래가지 못하며, 고통이며, 병 덩어리이며, 변화하는 성질을 지닌 것이다.

이 몸은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니 거품이 뒤엉킨 것과 같다.

이 몸은 오래 견디지 못하니 물방울과 같고, 번뇌로운 애욕에서 생긴 것이니 아지랑이 같다.

이 몸에는 심지가 없으니 파초동치 같으며, 뼈와 근육이 결합되어 이루어졌으니 마치 기계장치 같다.

이 몸은 마음의 뒤바꿈에서 생겼으니 허깨비 같고 바른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니 꿈결 같다.

이 몸은 과거 생의 행위를 반영하여 나타났으니 그림자 같으며, 인연에 의하여 생겨났으니 메아리 같다.

이 몸은 마음의 어지러운 상태를 닮았으니 뜬구름 같고 한 순간만 존재할 뿐, 결코 오래 머물지 않음은 번쩍이는 번갯불 같다. 갖가지 인연이 모여 생겨난 것이니 이 몸을 지배하는 주체란 있을 수 없다.

이 몸은 흙과 같아서 제 뜻대로 움직이는 법이 없다.

이 몸은 물과 같아서 나라는 실체가 없다.

이 몸은 불과 같아서 정해진 수명이 없다.

이 몸은 바람 같아서 나리고 할 것도 없다.

이 몸은 허공 같아서 자성<sup>78)</sup>이 없다.

이 몸은 네 가지 원소로 집을 삼지만 그렇다고 실재하지는 않는다.

이 몸은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오로지 공(空)일 뿐이다.

이 몸은 풀잎이나 나무나 담벼락이나 기왓장이며 병든 눈에 비친 그림자 같아서 아무런 감각도 없다.

이 몸은 풍차 같아서 저 스스로의 느낌이란 없다.

이 몸은 아무리 자주 씻고 닦아도 결국 쓰러져 흩어지고 마는 허망한 것이다.

이 몸은 404 가지 병으로 신음한다.

이 몸은 한시도 쉬지 않고 늙음의 지배를 받고 있나니 마치 오래된 우물 같다.

이 몸은 죽음으로 최후를 맞이하나니 결코 오래 존속하지 않는다.

이 몸은 **오온과 육계와 12처<sup>79)</sup>**로 이루어졌다고 여겨지나니 마치 다섯 살마(殺魔)의 사형집행인이요, 독을 가진 뱀이요, 텅 빈 마음 같다.

그대들은 마땅히 이러한 몸을 멀리하는 대신 여래의 몸을 간절히 믿고 따르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1) 자성(自性):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사물의 본질이나 본체. 반대 개념은 무자성(無自性)으로서 중관학파에서 말하는 공의 정의와 같은 뜻.

2) 오온 육계 12처: 번뇌를 참조

75) 오랜 옛적 과거세에 세자 제왕불의 감화를 받은 법장(法藏)이 2백 10억의 많은 국토에서 훌륭한 나라를 택하여 이상국을 건설하기로 기원, 48원(願)을 세워 자기와 남이 함께 성불하기를 소원하면서 장구한 수행을 지나 성불(10겁년 전에 성불)

76) 석가모니불: 화신불, 7불 중의 한 분. 7불 참조

77) 자씨(慈氏)라고도 한역함. 현재는 보살 그대로 그 정토인 도솔천에서 천인(天人)을 위해 설법하고 있

불(佛)과 보살(菩薩)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불의 지혜(智慧)를 담당하는 보살이 문수보살(文殊菩薩)이고
- 불의 자비심(慈悲心)을 담당하는 보살이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이며
- 불의 실천행(實踐行)을 담당하는 보살이 보현보살(普賢菩薩)이다.

현세를 다스리는 보살은 다음과 같다.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sup>78)</sup>** : 現世의 고뇌를 제도하는 천수천안(千手千眼)의 佛. 즉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보살이며, 고통받는 중생이 구원을 구하는 것을 들으면 곧 그 앞에 나타나서 고통과 괴로움을 덜어주는 자비의 화신인 보살.<sup>79)</sup>

**지장보살(地藏菩薩)** : 석존<sup>80)</sup>의 멸(滅) 후부터 미륵(彌勒)보살이 성도(成道)할 때까지 무불(無佛)시대에 있어서 중생제도를 부촉(咐囑) 받은 보살.<sup>81)</sup> 도리천궁(兜利天宮)<sup>82)</sup>에 계시면서 사바세계의 불행한 중생들에게 자비회사의 실천으로 그 고난을 이기고 열반락(涅槃樂)을 얻게 하는 구원의 보살. 지옥의 어둠 속에서 고(苦)에 신음하는 중생들에게는 고해(苦海)의 자항(慈航)이며 화택(火宅)<sup>83)</sup>의 감로(甘露)인 것이다.

**약사여래(藥師如來)<sup>84)</sup>** : 사람의 병을 고치고 고민을 들어주는 부처님으로 일명 **대의왕불(大醫王佛)**, **의왕선서(醫王善逝)**라고도 한다. 보살수업을 하고 있을 때 12가지 대원(大願)<sup>85)</sup>을 세우고 그 원을 다 이루어 부처가 되어 동방만월세계(東方滿月世界) 일명 동방 유리광세계(東方琉璃光世界)<sup>86)</sup>에 계신다. 약사경에서의 석가모니 부처님과 문

지만 석가모니불의 예언에 의해 그 수(壽)가 4000세(인간의 56억 7천만년)가 다한 때에 이 세상에 하생(下生)하여 용화수(龍華樹) 아래에서 성불하고 삼회(三會)에 거쳐 설법한다는 약속임. 그때는 부처님의 자격을 얻고 나서 미륵불이라 칭하여짐(대반야경)

78) 관세음보살의 명호(名號): 천수(千手), 여의륜(如意輪), 대륜(臺輪), 정취(正趣), 만월(滿月), 수월(水月), 군다리(軍荼利), 십일면(十一面) 등 여러 명호로 불리어지나 진리의 눈이 있는 자만이 볼 수 있고 귀가 트인 자만이 들을 수 있으리라. 언제 어디서나 자비를 내리시어 두루 모르는 바 없으며, 믿음 속에 항상 살아 계시니 모든 사찰에 통불교적인 분이시다.

79) 馬栖嚴: 佛敎誌要招集, 八空山 觀岩寺 대구 1993(2537). 권영한: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 전원 문화사. 서울 1995(2539)

80) 석가모니 부처의 별칭

81) 한길로(역): 지장본원경(地藏本願經), 영덕정사, 서울, 1987(2532)

82) 도리천궁: 천계 참조

83) 화택: 번뇌와 괴로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불에 타고 있는 집에 비유한 말. 법화경의 삼계무안유여화택에 근거. 즉 편안함이 없이 괴로워하면서도 괴로움을 모르는 불타는 집이라는 뜻이다.

84) 약사여래상의 특징은 왼손에 어머니랄드로 된 약병을 들고 오른손은 시무외인(施無畏印)을 나타내고 있다. 약사여래를 모신 곳을 약사전(藥師殿)이라고 한다. 일광(日光)·월광(月光)보살을 각각 좌우 협시로서 약사삼존(藥師三尊)으로 삼으며 권속에는 호법신으로서 12신장을 모신다. 施無畏印 = 팔을 들고 다섯 손가락을 밖으로 향하여 중생에게 무엇을 주는 모양을 한 모습.

85) 홍승용: 약사경. 대한불교약사회: 법공양판. 1997(불기 2541)

86) 동방유리광세계: 이 정도의 장엄한 모습은 이루 다 형용하여 말할 수가 없으며, 대단히 청정하고 여인

수보살<sup>87)</sup>의 대화<sup>88)</sup>에서 그 본체를 찾는다.

#### 4) 약사여래(藥師如來)의 보살시절의 12가지 서원(誓願)

대원을 세우고 실천 노력하면 누구나 여래가 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 i. 光明普照: 내 몸에서 나오는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모든 중생이 나와 똑같이 되게 하리라.
- ii. 隨意或辯: 내 빛을 보는 이들이 모두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고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게 하리라.
- iii. 施無盡物: 한량없는 지혜와 방편으로 모든 중생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모자람 없이 얻게 하리라.
- iv. 安立大乘: 그릇된 길을 걷는 이들이 모두 깨달음의 바른 길에 굳게 서게 하고 모든 수행자가 대승의 길에 굳게 서게 하리라.
- v. 具戒清淨: 중생들이 계율을 깨뜨려 나쁜 길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리라.
- vi. 諸根具足: 신체 장애나 온갖 병에 시달리는 이들이 모두 단정해지고 모든 병고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 vii. 除病安樂: 온갖 병에 시달리면서도 의지할 데 없고 약도 없는 가난한 이들의 모든 병이 사라지고 살림이 풍족해지게 하리라.
- viii. 轉女得佛: 여인들이 여자이기 때문에 받는 온갖 고통과 나쁜 일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 ix. 安立正見: 모든 중생이 악마의 그물과 이교도의 속박에서 벗어나 올바른 견해를 갖게 하리라.
- x. 除難解脫: 나라의 법을 어기고 묶이고 감쳐 처형당하게 된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 xi. 飽食安樂: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려 나쁜 짓을 저지르는 이들을 배불리운 뒤 진리의 맛으로 궁극적인 안락을 주리라.
- xii. 美衣滿足: 추위와 더위, 모기, 파리 따위에 시달리는 헐벗고 가난한 이들에게 원하는 것을 모두 주리라.

이 없다. 또 지옥 아귀 축생의 3악도 없다. 번뇌와 슬픔의 소리는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평화, 안락한 곳으로 대지는 유리로 되어 있고 성곽 궁전 집들은 모두 칠보(여러 실이 있다. 주로 금·은·유리·옥·호박·진주·산호)로 되어 있다. 탐욕이 없는 세계.

87) 문수보살(文殊菩薩 Manjusri): 석가모니의 왼손 편 협시불(오른손 편은 普賢菩薩)로서 지혜를 맡음. 머리에 5계를 맺은 것은 대일(大日)의 5가지 지(智)를 포함. 바른 손에는 지혜의 칼을 들고 왼손에는 꽃 위에 지혜의 그림이 있는 청련화(靑蓮華)를 쥐고 있다. 보현보살은 理·定·行의 德을 담당하고 있다. 왼손에 칼을 세운 蓮花를 갖고 오른손에 三業妙善의 印(손바닥을 위로하여 악지와 생이손가락을 구부린다)을. 특히 연명을 수행하는 본존을 보현연명보살이라 한다.

88) 부처님이 문수사리에 말씀하기를 "이 땅에서 동쪽으로 열 개의 갠지즈강 모래 수 만만 부처님의 땅들을 지나면 유리처럼 맑고 깨끗한 '정유리(淨琉璃)'라는 세계가 있다. 그 땅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름은 '약사 유리광 여래'·동등한·바르고 평등하게 깨달은·명(明)에의 행(行)을 완성한·잘 간·세간을 아는·더 이상 없는·사람을 길들이는·천신과 인간의 스승인·깨달은 어른이라 불린다'는 분이 있다.

"또 문수사리아, 약사 유리광 여래는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애초에 세웠던 서원의 힘으로 모든 중생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온갖 병고와 귀신들의 작란(作亂)에 시달려 단명하거나 횡사하는 것을 알고, 이를 병고가 사라지고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해 주고자, 삼매에 들었다. '모든 중생의 고뇌를 없애는 삼매'라는 이름의 이 삼매에 들어가신 후 약사 유리광 여래는 살상투에서 큰 빛을 내었는데 그 빛 속에서 위대한 진언(眞言)이 흘러나왔다"고 하셨다. 이 진언이 끝나자 대지가 뒤흔들리

12대원을 해석한 줄거리는 모든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며, 모든 불구자를 완전하게 하며, 모든 중생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며, 모두 대승의 진리를 실천하여 가장 높은 깨달음을 얻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의 세계보건기구에서 내린 건강의 정의와 윈슬로우의 공중보건학의 목표를 합한 것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서원은 모든 인류의 서원인 것이다. 따라서 인류의 서원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국대학의 정각원 원장 정성본 스님<sup>89)</sup>은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각자의 일을 통해서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라 전제하고 “신체적인 건강은 의식주가 정상적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면 정신적인 건강은 마음에 근심 걱정 불안 초조나 두려움 시기 질투 교만함이 없는 순수한 본래심(本來心)으로 편안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는 삶을 말한다”라고 현대적 건강의 뜻을 가미하여 풀이하고 있다.

## 5) 불교적 의학의 한국 전래

불교경전은 모두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전래되었으므로 삼장법사<sup>90)</sup>가 번역한 경서로

며 광명이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중생의 병고가 다 사라지고 안락하게 되었다. 그 진언(眞言)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의 대의왕 약사 유리광 여래·응공·정등각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리하여 음약사여래 계신 곳으로, 약사여래 계신 곳으로, 약사여래 계신 곳으로 함께 갑니다. 스바하”였다.

“문수사리아,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남자나 여자를 보거든 한 마음으로 그 병자를 위해 깨끗이 목욕시키고 음식이나 약이나 벌레 없는 물에 108번 진언을 외운 뒤 그것을 먹이도록 해라. 그러면 모든 병이 다 사라질 것이다. 또 바라는 것이 있어 이 진언을 열심히 외면 모두 뜻대로 다 될 뿐 아니라, 병이 없어도 수명이 연장될 것이다. 또 목숨을 바친 뒤에는 그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 수행하여 마침내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문수사리아, 약사 유리광 여래께 마음을 다해 이 바지하는 이들은 항상 이 진언을 잊지 말고 간직해야 할 것이다.”

또 “문수사리아, 마음이 좋은 남자나 여인이 위에서 말한 일곱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는 외워 간직하고서, 새벽에 이를 깨끗이 닦고 씻은 뒤 여러 가지 향이나 꽃·향가루·향불·향유·음악을 불상에 바치며, 이 경전을 스스로 쓰거나 남에게 쓰게 하여 한마음으로 받아 간직하고서 그 뜻을 법사께 듣고, 법사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다 드리면 곧 모든 부처님의 가호를 입게 되어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며 나아가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문수보살의 서원과 예언〉 그 때,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여쭙었다.

“부처님, 저는 이제부터 약사 유리광 여래의 이름을 마음이 좋은 남녀들이 있는 곳에서 갖가지 방법으로 퍼뜨려, 그들에게 들려주겠습니다. 그들이 잠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깨우겠습니다. 만일 이 경전을 받아 간직하고 읽고 외워 선진하거나, 남을 위해 설명해주거나, 스스로 쓰거나 남에게 쓰게 하거나, 경전을 깨끗한 5색 비단으로 곱게 싸서 깨끗이 청소한 높은 자리에 모셔두고 온갖 꽃과 향·향유·깃발·양산·음악을 바치면 그때 4천왕이 그 가족을 비롯한 무수한 천신들과 함께 모두 그 곳을 찾아와 반들어 지킬 것입니다. 이 경전에 있는 곳이나 이 경전을 읽고 외우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약사 유리광 여래의 이름 및 그 분이 옛날에 세우신 훌륭한 위대한 서원 때문에 다시는 횡사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또 푸신들이 정기(精氣)를 빼앗아 가는 일도 없을 것이며, 설사 이미 뺏겼더라도 도로 예전과 같이 될 것입니다.”

89) 정성본: 수행과 건강, 정각도량, 48호: 6쪽, 불기2543(1999)

서 모두 한문으로 되어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연대를 살펴보면 AD 372년(불기 916) 고구려 소수림왕(小獸林王) 2년에 처음으로 전래된 이후 현재까지 1627년 동안 뿌리 깊은 불교문화를 이루어 놓았다. 백제에서는 고구려에서보다 12년 후인 384년(불기 928) 침류왕(枕流王) 원년에 전래되었지만 급속히 발전하였고 신라에서는 눌지왕 때(417-458년) 고구려 사람 묵호자(墨胡子 = 阿道)에 의해 전래된 이래 삼국통일의 원천적 정신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으며 고려시대까지도 찬란한 문화를 이루었으며 조선(朝鮮)의 송유역불 정책과 일제의 동화정책<sup>90)</sup>으로 다소의 피해를 보았으나 그 유적들이 도처에 남아있으며 호국불교로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에 정착된 불교 윤리는 인과응보설(因果應報說), 보시사상(布施思想), 보은관념(報恩觀念), 보살계정신(菩薩戒精神) 등으로 집약<sup>91)</sup>할 수 있다.

의학의 전래는 고구려에서는 AD 561년(불기 1105), 평원왕(25대) 3년에 오(吳)의 지총(知聰)이 의약서 164권을 전한 것이 기록상으로 시작이다. 마법의술과 병행하여 중국의술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였다. 백제에서는 중국 남조(南朝)와 접촉하여 발전되었고, 신라는 고구려 백제를 통한 간접적 접촉이 컸지만 중국에서 직접 수입 가능성도 있다.

(1) 초기의 의료수준은 원시의술의 형태였다. 주술적 마법 의술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僧醫들이 나왔고** 일본에까지 의술을 배풀고 전수하였다고 한다.

(2) **중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중국 의학이 수입되었다.**

한국의 불교 재단에서는 한의학을 선호하고 있으며 여러 종파 중 조계종에서만 1978년 10월에 한의예과 신설인가를 먼저 받았다. 서양의학 도입이 늦어진 이유도 그 신앙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참고하면 짐작이 갈 것 같다. 8정도를 불교의학의 심신(心身)요법의 기본<sup>92)</sup>으로 삼고 있다.

鑑眞(唐僧?) 등: 이들이 전한 불교의학의 근원은 인도(印度)의 병리사상이었다.

즉 \* 병은 地水風火 4大의 부조화로 발생

\* 호흡(呼吸)을 중시하고, 춘하추동 4季 變化에 따라 조절하여 배속에 넣어 소산

90) 삼장법사(三藏法師): 경(經), 율(律), 논(論)에 능통한 승려를 가르킴. 좁은 의미에서 현장(玄奘)을 가르킴. 현장이 불경을 번역하던 도서관이 지금도 중국의 고도 서안(西安)의 대안탑(大雁塔)으로 남아 있다.

91) 일제(日帝)의 동화정책: 각주 조계종 참조

92) 최법혜: 불교윤리학론집, 고운사 본말사교육연수원, 법공양판: 284-303쪽, 1996

93) 노인문제 연구소: 질병의 극복에 대하여, 연꽃 마을, 138호: 2쪽, 불기 2543(1999) 7월 20일

(消散)시키면 중병(衆病)이 발생하지 않는다.

\* 4계의 기를 절기(節氣)라 하고 이것이 변하면 4대(大)도 따라 변하게 되는데 이때에 투약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병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다.

醫 書:

金光明王經: 唐의 義淨이 번역한 것을 다시 日語로 번역한 것  
상한잡병론 16권(後漢 張仲景) 등 중의서에 證과에 의한 對症요법

명의(名醫):

고구려: 덕래(德來) 지충(知聰) 모치(毛治) 혜자(惠慈)

백 제: 왕유능타(王有陵陀, 醫學博士) 반량풍(潘量豐, 採藥師) 정유타(丁有陀, 採藥師) 관륙(觀勒, 僧醫) 법장(法藏, 僧醫) 익전금중(益田金鍾, 僧醫) 범명(法明, 僧醫) 다상(多常, 僧醫) 소수니(小手尼) 억인(億仁) 등

신 라: 김무(金武) 법상(法揚, 僧醫)

(3) 불교적 예방의학

신의학을 배워 의사가 된 호운<sup>94</sup>스님은 이미 석존께서는 오늘날의 예방의학에 해당되는 위생수칙을 강조하여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여러 행동지침을 인정하셨다. ①숙면 할 것(십송을). ②목욕의 중요성(혈액 순환을 돕고 심신을 상쾌하게 할 것)을 인정. ③세수와 양치의 필요성. ④음주로 인한 해독을 경고(대지론이나 사분율). ⑤포식(과식)불가. ⑥깨끗한 물을 마신다. ⑦침, 대·소변 등 사람의 배설물 처리를 깨끗이 할 것. ⑧신체를 청결히 할 것. ⑨실내 청소를 깨끗이 할 것. ⑩이외에 식당이나 화장실 사용방법 등 일상의 위생관리에 대한 교훈이 여러 불경 속에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하였다.

(4) 한국 불교의 신의학 도입

전국에 의과대학<sup>95</sup>이 현재 41개교이며 한의과 대학이 11(동국대 한의대 포함)개교이다. 의과대학 중 9개의 국립을 제외한 32개교 중 반수 이상이 그 설립목표가 기독교 정신 또는 그 유사한 색채를 띠고 있는데 비해 불교이념을 목표로 하는 의과대학은 단 1개교뿐이다. 위의 유마거사의 신체관과 병의 발생이론을 보면 과거에는 오늘과 같은 현대의학 발전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는 것으로 짐작이 간다.

조계종에서 1985년에 비로소 불교정신을 건학 이념으로 하는 동국대학교의 경주 캠퍼스에 신의학 교육기관으로 의과대학 설립인가를 받았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없지 않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의대 신설은 동국대 개교 80년만이며, 삼국시대 이래 약사전, 대비원, 해민국과 같은 의료기관을 설치하여 중생을 구제해 왔던 불교이념의 전통

94) 호운스님: 불교의 예방의학, 정각도량 48호: 8쪽, 불기2543(1999)

95) 대한의사협회 기획실: 대한의사회 현황, 대한의사협회, 1999년 1월

을 이어받은 동국대학교로서, 이미 한의대는 1978년 동국대 경주 캠퍼스 출범과 동시에 설립되었지만 의과대학을 신설함으로써 불교종립대학으로서의 사명을 다 할 수 있게 된 쾌거라고 자평하고 있다.<sup>96)</sup>

불교이론을 많이 도입하였다는 원불교(불교종파가 아님)에서도 1981년에 의예과를 인가받았다. 한의과대학도 11개교 중 불교이념을 가진 한의대도 1개교뿐이며 국립은 하나도 없다.

이러한 가운데 불교의학의 진로<sup>97)</sup>를 어떻게 설정하였을까? 하는 것은 우리들의 관심사이다.

왜 이렇게 늦었을까 생각해 보았으나 어떤 특별한 이유를 찾기보다 일반적인 불교사상이 자연사적인 사고에 있기 때문에 질병도 어떤 업보로 보고 감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선(禪)의 기본 자세인 자아와 명상<sup>98)</sup>으로 시작되는 모든 수행으로 질병을 포함한 모든 악조건을 극복함으로써 만사형통을 기원하고 있다. 대의왕불의 보살 수행 시에 12대 서원을 세우고 다 이루어 부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약사경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역시 불교적 의학은 이러한 정신적인 보살 수행과 함께 정신의학적으로, 또 자연의 식물성 영양소를 취하며, 심신을 단련하며, 우리들의 건강을 해칠 만한 환경을 피하거나 조성하지 말아야한다는 점에서 자연환경 보호운동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돋보인다.

## 5. 현상계의 윤리적 수행 방법론적 근거

### 1) 윤리관의 근거

인간사의 모든 행복과 불행을 남에게서 찾는 이들에게 현실은 지옥일 수밖에 없다. 그와 반대로 매사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반성하며 노력하는 이들에게 이 세상은 극락이다. 즉 윤리관의 근거<sup>99)</sup>는 자리리타(自利利他)의 대승사상이다.

불교에서는 현세를 고택(苦海)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있는 지금 이곳이 곧 바로 지옥과 같은 곳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부처님 아니 계신 곳이 없고, 극락 아닌 곳이 없다(十方國土中 唯一乘法)고 하여, 선의 경지에서 보는 내 마

96) 東國大學校 九十年誌 I, 東國大學校, 219-220쪽, 1998

97) 김두희: 불교의학의 진로. 정각도량, 통권 36호: 12쪽, 불기 2541(1997)

98) 정성분: 자아와 명상 강의 의미. 정각도량, 통권 44호 7쪽, 불기 2542(1998)

99) 최법혜: 불교윤리학론집, 고운사 본말사교육연수원, 법공양판 1996

음이 곧 부처요 그 현실이 곧 극락이라 말한다. 불교인들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성불(成佛)이다. 그리고 극락에 가려고 하는 노력은 성불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일이기도 하다. 지옥은 육도 윤회에서 맨 아래 단계이고 극락은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난 곳인데도 불교에서는 같다고 가르친다. 이런 점이 기독교와의 차이일지 모른다. 기독교에서는 천국에 있는 이들이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지옥에 있는 이들이 천국으로 건너올 수도 없다(누가 16장 26절)<sup>100</sup>고 하여 천당과 지옥을 명백히 구분하는데 불교에서는 이러한 단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법화경을 쓰고 독송하여 아비를 지옥에서 구출한 설화<sup>101</sup>나 목련구모(木蓮求母)의 설화<sup>102</sup>처럼 무간 지옥에 빠진 중생도 얼마든지 극락에 올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sup>103</sup> 그 주역을 지장보살이 한다고 한다.

현상계에서의 육체적 성장과정에서 3번의 큰 매듭(三生)<sup>104</sup>을 지우며 이성(理性)이 발달하고 그 이성의 정도에 따른 파괴력과 창조력을 마음대로 구사하는 만물의 영장(靈長)이 되어 현세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력이 약화되는 노화과정의 현상을 죽음의 길로 보면 또한 3번의 큰 매듭(三死)<sup>105</sup>을 지운다. 그리고 윤회설에 따르면 한 죽음은 곧 새로운 세상의 탄생이라고 한다(死即生也). 그 지은 업(業=카르마)<sup>106</sup>에 따라 열반에 이르게 할 때까지 시지프스<sup>107</sup>의 신화(Myth of Sisyphus)처럼 벌을 받으며 끊임 없이 다시 태어난다. 그것은 마치 사인(Sine)곡선을 그리는 것처럼 계속 생멸한다고 믿는다.<sup>108</sup> 육도 중 어느 순회의 길도 같을 것이라고 본다. 시지프스는 까뮈(Camus)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시지프스의 신화」의 주인공으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무거운 돌덩이

100) 누가복음: 신약성서, 대한성서공회, 서울, 134쪽, 1983. 16장 19-26절의 내용은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처지가 바뀌어 (23절) 음부(그늘진 곳,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들어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를 보내어 손끝이 물을 짖어 불꽃 속의 목마름을 면하게 하기를 원했으나 (25절)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26절) 이분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이 있어서 이곳에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리로 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고 하였다.

101) 鄭斗石(편저): 법화경을 쓰고 독송하여 지옥에서 구출, 불교설화전집, 한국불교출판부 서울 1990(2534)

102) 석존의 10대 제자 중의 하나인 신통제일의 목건련이 많은 사문들에게 모든 정성을 베풀어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여 극락으로 모셨다는 전설.

103) 장영우: 지옥은 없다. 불교 통권 524호 대한불교출판부, 서울, 1999.

104) 삼생(三生): 접합자가 되는 것, 즉 임신이 현상계의 시작으로 첫 번째 탄생이요 고고성을 올릴 때가 두 번째 탄생이며 다시 다른 생명체를 이룰 수 있는 처지(난자와 정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춘기)가 되어 서로가 매력(魅力) 있는 이성(異性)을 만났을 때를, 즉 결혼을 세 번째의 탄생(또는 사회적 탄생)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105) 삼사(三死): 그 죽음의 길 또한 세 번의 고비를 겪게 된다고 본다. 즉 이성간의 매력을 잃었을 때면 그 첫 번째요, 사회적으로 고독을 느낄 때가 그 두 번째이며, 정신적 신체적 죽음이 그 마지막이 된다.

106) 카르마(業): 후세의 운명을 결정하는 한 존재의 행위의 총화

107) 시지프: 운문 논평: 시지프스의 고통(苦痛), 罽門, 통권 69호: 48쪽, 불기 2543(1999)

를 산정으로 향해 밀어 올려야만 하는 형벌을 받는 신으로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 돌덩이를 산정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인생의 업으로 비유하는 것은 대부분이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이것이 죄에 대한 응분의 벌이냐 아니면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선물이냐에 대하여는 현상계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이미 석존은 분명히 인생을 고통이라 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sup>108)</sup>을 제시하였고 또 그것을 극복, 성취해 보여 주었다. 그러나 그 이후 많은 세월이 흐르자 극복하는 방법으로서의 해석을 “석존이 보여 준 삶은 고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 영원한 즐거움이다”라 표현하기도 한다. 혜원<sup>109)</sup>스님이 엮은 대행스님의 법어에 따르면 삶은 고가 아니라고 분명히 표현한다. 또 “一日不作 一日不食”이라는 백장(百丈)<sup>110)</sup>스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본다.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대최고의 선물은 노동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노동이 고통이 될 수 없다. 일단 고통이라 생각한다면 악인에 대한 죄가(응보)라 생각되나, 비록 고통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선인(善因)에 의한 숙명으로 받아들이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이라 인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체의 과정 중의 정신 세계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그 정신 세계는 곧 마음이 좌우한다. 그런데 그 마음이 많은 좋고 나쁜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리고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면 번민(煩悶)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선경에 이르려면 그러한 뜻을 이루기 위한 서원(誓願)을 세우고 나아가는 길로서 6가지 바라밀(婆羅密<sup>112)</sup>, 사문(沙門**

108) 영혼 불멸의 윤회설의 예: 투즈디 롬상 람파(Tuesday Lobsang Rampa)는 [나는 라마승이었다]라는 실화 자전 소설을 저술했다. 그 내용은 자기가 티베트의 라사(Lhasa)에 있는 포탈라(Potala) 승원의 고위 라마승이고 또 중국에서 공부한 공인된 의사였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가 한번도 티베트에 가본 일이 없는 영국 태생의 캐나다 시민이라는 사실이다. 결국 500년만에 다시 영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이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생각해 보자. 한마디 더 붙이면 업이 큰 사람이면 생사의 기록이 크고, 업이 적은 사람이면 그 기록이 작다고 믿는다. (롬상 람파 (박영철 역) 제 1부, 제 3의 눈, 나는 라마승이었다, 정신세계사, 서울)

109)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한마음 선원, 경기도 양주시, 불기 2538(1994)

110) 혜원: 삶은 쫓가 아니다, 한마음 선원, 서울, 260-280쪽, 1996

111) 백장스님: 중국 당나라 스님(720-814), 백장청규(百丈清規, 선종의 법규)를 만들어 처음으로 선문(禪門)의 규칙(規式)을 제정한 대지(大智) 회해(懷海), 강서성 남창부 봉신현의 백장산에 있었으므로 백장선사라고 부름.

112) 육바라밀(六婆羅密): 바라밀은 저 언덕에 건너감을 뜻하는 말이다. 육바라밀은 중생의 이 언덕에서 보살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6가지 방법이다.

- i. 보시(布施): 남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것, 財布施 法布施 勸勞奉仕 등
- ii. 지계(持戒): 계율을 지키는 것
- iii. 인욕(忍辱):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
- iv. 정진(精進): 올바른 수행을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것
- v. 선정(禪定): 마음을 고요히 안정하여 맑히는 것
- vi. 지혜(智慧): 아욕(我慾)과 집착이 없는 순수한 마음에서 솟는 올바른 판단력으로 매사에 대응(對

들에게는 6가지뿐이 아니다)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관(倫理觀)이 근거가 되어 그 수행 과정에서 더 나아갈 행위의 방향이 설정되는 것이다. 화엄경(華嚴經)에서는 “대원을 세우지 않으면 마귀에게 시달린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력을 세우면 안 되는 것이 없을 것이다”라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그 기간이 짧은 길든 사전에 계획해 놓은 일정에 따라 여행을 시작하면 수월하게 여행을 마치게 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 사전 여행 계획이 곧 원을 세우고 수행을 하는 것이 된다.

## 2) 윤리의 주제

**아트만(atman, 自己)**<sup>113)</sup>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무아(無我)의 경지에서의 적극성이다.

그러나 스스로의 앞길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힘이 들 때 또는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에는 나의 전생이 무엇이며 또 나의 미래는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고민에 잦아들 때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생(前生)의 일을 알고자 하면 금세(今世)에 받은 것을 보고**  
**내생(來生)의 일을 알고자 하면 금세(今世)에 하는 것을 보라**  
 는 가르침을 두고 생각하게 된다.

석존이 아난(阿難, 10대 제자)에게 남긴 최후의 설법 중의 하나<sup>114)</sup>인 **자등명(自燈明)법등명(法燈明)**에 따르면 결국 **자업자득(自業自得)이요 자작자수(自作自受)**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말이 법구경(法句經)<sup>115)</sup>의 아트만 장(章)에 자기 자신이 행한 악은 자기에게 돌아나

應)하는 것이다.

十婆羅密 : 위 육바라밀에 다음(지혜를 4가지로 나눔)을 더한 것

vii. 방편(方便) : 방편에 의해 무량한 지혜를 닦고 중생구제에 진력

viii. 원(願) : 서원에 의해 그 위없는 지혜를 구하며, 중생을 구제한다.

ix. 역(力) : 일체의 그릇된 논의를 파하여 중생을 제도한다.

x. 지(智) : 일체 법을 여실(如實)히 한다.

113) 아트만: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라는 것은 자신이 의지할 본체의 자기를 추구한다는 선언은 석존(釋尊)의 최후의 설법 중의 하나로 전해지는 자등명 법등명의 교설(敎說)이다.

114) 자기를 디빠(dipa, 등불 또는 섬)로 삼으며, 자기를 귀의처로 삼되 남을 귀의처로 삼는 일은 없으며, 법을 디빠로 삼으며, 법을 귀의처로 삼되 남을 귀의처로 삼는 일없이 하라. 여기서 법(法)은 다르마(dharma)로서 ①법칙, 정의, 규범 ②가르침 ③진리: 영원한 최고의 진리, 최고의 존재 ④경험적 사물 등 4가지 의미로 나누어지는데, 위의 법등명의 법은 ①②③의 어느 것을 취하여도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의 규범으로서의 법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의 법, 혹은 영원의 진리로서의 법에 수순(隨順)하는 자기아말로 본래의 자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15) 법구경(法句經): 불교의 윤리적 교의를 시의 형태로 나타내어 불도에 입문하는 지침으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 소개된 법구경은 전 26장 423의 시를 수록한 팔리어본의 국역과 전 39장으로 된 한역

며, 자기로부터 발생한다고 적고 있다.

### 쉽게 이해하는 법

중생의 가정과 일터가 곧 여래의 처소이다.

지금 살고있는 이 자리가 바로 구정토<sup>116)</sup>요, 구경계<sup>117)</sup>이다.

자기의 일거수 일투족이 닿는 곳마다 여래의 처소로 알고 청정하게 한다면 참된 수행자라 할 수 있다.

부처님 어디 있나 내 마음속에 있네  
내 마음 어디 있나 한마음 속에 있네  
한마음 어디 있나 찾는 마음에 있네

### 3) 불교 윤리성의 근원<sup>118)</sup>

- 諸惡莫作 衆善奉行 · 自淨其義 · 是諸佛教
- 모든 악을 짓지 않으며 못 선을 받들어 봉행하며 : 윤리적 덕목
-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일 : 마음의 정화
-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 부처님의 가르침

### 4) 선악의 기준과 내용

왜 선악을 거론해야 할까 생각해 보자.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는 "악이 악인 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선이 선인 줄 모르는 사람도 없다. 악이 악인 줄 알면서 행하는 것이요. 선이 선인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마 기준설정이 사람마다 다를 지도 모를 일이다. 그것은 각자가 아는 것 이외에 더 아는 것이 없는데도 그 아는 것만으로 형성된 아집을 떨치지 못하기 때문<sup>119)</sup>에 무시이래(無始以來)로 악이 돌아난다는 것이다. 고로 이러한 아집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과제가 불교의 근본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해탈(解脫)이다. 이것 때문에 석가모니는 8만 4천 경을 설하였다.<sup>120)</sup>

법구경(2권)의 국역본 2가지가 있다. 서력기원 3-4세기경에 정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16) 구정(九定): 3학의 정을 9가지로 나눈 것. (色界를 참조)

117) 구경=구부경(九部經): 대승(大乘)·구부(九部)·구분교(九分教)라고도 함. 12부경 중에서 인연(因緣) 비유(譬喻) 논의(論議) 3부를 제외한 나머지, 즉 수다라(修多羅) 기야(祇夜) 가타(伽陀) 이제목다가(伊帝目多伽) 시다가(闍多伽) 아부달마(阿浮達磨) 우타나(憂陀那) 비불락(毘佛略) 화가라(和伽羅)를 말한다.

118) 최법해: 윤리의 기본적 입장, 불교윤리학론집, 고운사 본말사교육연수원, 법공양판: 1쪽 1996. 법구경 183偈.

119) 범산스님의 『위빠싸나』 서문 참조

120) 고정일: 참다운 수행의 길, 정각도량 통권 45호, 불기 2543(1999)

법구경의 한 구절을 들어본다. “그것은 재앙이 없을 것이라 해서 조그만 악이라고 가벼이 여기지 말라. 비록 한 방울의 물은 적어도 그것이 모이면 큰 병을 가득 채운다.” 이 말은 적다고 해서 그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선악의 근본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1) 기준: 쿠살라(kusala, 善)란 바람직한 과보(果報)가 있는 것이고, 아쿠살라(akusala, 不善)란 바람직하지 못한 과보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바람직한 일이란 많은 사람이 좋아하거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라도 선이 아닌 것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 (2) 도덕적인 근거: 인도(人道)에는 일반의 업(karman, 業)사상에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업은 곧 행위로 번역된다. 고로 행위자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인과관계(因果關係)를 문제로 하고 있으며, 그것은 곧 선인락과(善因樂果) 악인고과(惡因苦果)라는 인과응보(因果應報) 사상이 되어 나타난다.

불교의 수행은 인과의 고리가 연속되는 윤회(輪回)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인간이 자유롭지 못한 것도 인과에서 벗어나지 못해서이다. 그렇다면 수행을 잘한 훌륭한 수행자는 반드시 인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란 의문이 생긴다. 그 해답으로 중국 송나라 시절의 무문혜개(無門慧開)가 쓴 화두모음집 무문관(無門關)에 나오는 백장야호(百丈野狐)<sup>121)</sup> 이야기를 생각하며 법구경 한 구절을 들어보면 “허공도 안되고 바다속도 안 된다(非空非海中), 깊은 산 바위틈에 숨어도 안 된다(非隱山石間), 일찍이 내가 지은 업보의 재앙은(莫能於此處), 이 세상 어디서도 피할 수 없다(避免宿惡殃)”이다. 결국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인과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 (3) 선악의 내용: 신업(身業), 어업(語業), 의업(意業)의 가부(可否)에 따라 선악이 생성된다고 한다. 다만 누구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악업에서 선업으로 떠나는 일이라는 것이다. 즉

신업(身業)은

① 생물을 죽이는 일에서 떠나는 일 (不殺生) ← 殺生

121) 백장야호 이야기의 요점: 불락인과(不落因果)가 아니고 불매인과(不昧因果)라는 것이다. 즉 백장산 백장스님의 설법을 들기 위해 나타난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는 가섭(迦葉 = 迦攝)불 재세(在世)시에 대중의 수행을 지도하던 사람이었다. 당시 그가 법문을 설하는 중 한 학인(學人)의 “수행을 잘 한 훌륭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지느냐?” 라는 질문에 불락인과(인과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대답하였다가 500세 동안 여우의 몸을 받고 있었다며 이 여우의 몸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청하자 백장산사는 다시 한번 그런 질문을 하게 하고 불매인과(인과에 어둡지 않을 뿐)라고 대답하니 금시 그 노인은 깨달고 여우의 탈을 벗어나 감사하고 뒷골 여우시신을 장례해달라는 부탁말을 남기고 사라졌다는 비유적 이야기이다.

- ②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일에서 떠나는 일 (不偷盜) ← 偷盜  
 ③ 갖가지 애욕의 사된 일에서 떠나는 일 (不邪淫) ← 邪

어업(語業)은

- ④ 거짓말(虛言)에서 떠나는 일 (不妄語) ← 妄語  
 ⑤ 중상(中傷)하는 말에서 떠나는 일 (不兩語) ← 兩舌  
 ⑥ 욕 말에서 떠나는 일 (不惡語) ← 惡口  
 ⑦ 아첨과 수다떠는 말에서 떠나는 일 (不綺語) ← 綺語

의업(意業)은

- ⑧ 탐욕에서 떠나는 일 (不貪慾) ← 貪慾  
 ⑨ 증오에서 떠나는 일 (不瞋恚) ← 瞋恚  
 ⑩ 바른 견해를 가지는 일 (正見) ← 癡暗

### 5) 마음의 중시(重視)

위의 신업, 어업, 의업이라는 3업 중 의업은 탐욕(貪慾=貪), 증오(憎惡=瞋), 미망(迷妄=癡)을 불선의 근본(三不善根)으로 보고 그 반대인 무탐(無貪) 무진(無瞋) 무치(無癡)를 삼선근(三善根)으로 보는 설이다.

화엄경(華嚴經) 각림보살의 계송을 소개하면 “마음은 화가(畫家)와 같아서 세상의 모든 것을 능히 그려낸다. 오온도 모두가 마음에서 생기는 것, 만들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삼세의 모든 것을 알고자 하거든 마땅히 알아라. 존재의 바탕이 모두 마음으로 되었다는 것을”(心如工畫師 能畫諸世間 五蘊悉皆生 無法而不造. 若人欲了知 三世一切佛 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

도업<sup>122)</sup>스님의 화엄경 연구에서 이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정리하고있다. 하나는 망심(妄心)인 증생심(衆生心)이고 다른 하나는 청정심(淸淨心)인 불심(佛心)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상응심(相應心)과 불상응심(不相應心)의 기로(岐路)가 바로 딜레마일 것이다.

보리행경(菩提行經)<sup>123)</sup>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사람은 선을 행함으로써 그 사람됨이 넓어지고 커진다. 또 향기롭고 시원한 연꽃 태 속에 들어 그 자태가 더욱 아름답고 그 빛이 더욱 밝아진다.”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약칭 法華經)<sup>124)</sup>의 하심(下心)의 표상인 상불경보살(常不經

122) 이도업: 華嚴經思想研究 제4장. 民族社. 서울. 190쪽. 1998.

123) 보리행경: 보리행.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실천

124) 법화경: 모든 경전 중 가장 넓은 지역과 많은 민족들에 의해 지지 애호된 대승경전 중의 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중국에서 한역(漢譯)된 이후 수(隋)의 천태산(天台山)의 천태대사(大師) 지의(智顛).

菩薩)의 인사말을 상기하자. “나는 그대를 존경한다. 결코 그대를 경멸하지 않는다. 그대는 미래에 반드시 부처를 이룰 것이다.” 여기에 들어있는 뜻은 자찬훼타(自讚毀他)하지 말라는 뜻이 들어있다. 그는 “남의 잘못을 보지 말라.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남의 잘못을 보고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허물이니라”라는 부처님의 말을 가장 잘 이행한 보살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다.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자찬훼타는 아상(我相)과 아집(我執)과 아만(我慢)에서 비롯되는 병이다. 유교에서도 ‘소욕지족(所欲知足)’이란 말을 쓰고 기독교에서는 “부자(富者)가 천당 가기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도 어렵다”란 말로써 욕심의 그릇됨을 일깨우고 있다. 비록 사문들이 아니라도 “자신을 낮추고, 없애고, 비우려 애쓰는 데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할 것이다.

## 6. 불교적 의학윤리 요약

불교는 ‘부처가 깨달은 만큼 중생도 깨닫게 가르치는 교’로서 진리를 깨닫는 것을 제일 목표로 삼는데, 진리라는 것은 철학적인 면으로서 우주의 진리와 자기의 참 생명과 바른 인생관을 깨닫고, 도덕적인 면으로서 일체 중생이 악한 마음을 고쳐서 착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며, 생활적인 면으로서 일체 중생이 괴로움을 떠나 영원한 복락(福樂)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인생은 고통(苦)의 원인(集)을 찾아 제거(滅)하여 최고 경지에 이르기(道) 위해서는 8가지 바른 길(八正道)을 찾아가야 한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이 6가지 바라밀(婆羅密)이며, 이것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보살(菩薩)이다.

이 8가지 덕목은 사물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노력하며, 진리를 생각하며, 맑고 또렷하게 안정을 취하는 것이다.

6바라밀은 사랑과 동정과 즐거움과 함께 누가 뭐라 해도 평정을 잃지 않는 4가지 마음(四無量心 = 慈悲喜捨)으로 그 정신적 기반을 삼아 선행(善行)을 하는 것이다. 그 중 첫째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누구에게나 무엇이든지 적절하게 잘 베푸는 일(無住相

538-597)에 의해 이 경에 담겨있는 깊은 뜻과 사상이 교학적 사상적으로 조직 정립됨으로써 천태사상이 발전하여 화엄사상과 함께 중국 불교의 쌍벽을 이루었다. 인도의 재가불교신도들이 중심이 된 대승불교운동의 태동과 맥락을 같이 한다. 오늘날 천태종(天台宗)은 화엄경과 용수(龍樹)보살의 사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지의의 선구자로 북제(北齊)의 혜문(慧文)과 진(陳)의 혜사(慧思)가 있어 지의를 천태종 제3조라 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에는 의천(義天)이 송나라에 가소 종지(宗旨)를 배우고 돌아와서 1097년(고려 숙종 2년) 개성에 국청사를 세우고 천태교를 강설함으로써 성립되었다. 그 내용을 연기론에 반하여 마음을 근본으로 삼아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 있었다.

布施)이며, 다음이 규율(道德)을 잘 지키고(持戒),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며(忍辱), 바른 수행을 쉬지 않고(精進), 고요히 안정을 취하여(禪定), 순수한 판단력(智慧)으로 매사를 대하는 일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인이라면 이러한 수행방법에 익숙해지는 것이 어떨지. 특히 의학도가 어떤 딜레마에 봉착하였을 때, 어떤 유혹이 다가올 때, 이러한 수행의 길과 방법을 생각하면 판단에 크게 도움이 될 줄 안다.

인류의 모든 질병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점에서 불교의 인과응보라는 믿음과 일치한다. 따라서 현대 의학은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그 근본을 제거하고 환자의 안락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의사는 바로 이러한 대중의 고통을 없애고자 하는 원을 세우고 그 질병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고로 이상의 불교적 수행방법에 따른다면 어떤 난관이라도 보다 수월하게 해결되어 안락을 가져올 것으로 믿는다. 그러면 그 수행 내용이 곧 불교적 의료윤리가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의료행위는 보살행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행은 평소에도 언제 어디서나 해야 한다.

=ABSTRACT=

## Medical Ethics in the Buddhism

KIM Doohee\*

As the 'religion of teaching people of nirvāna of Buddha', the first objective of Buddhism is to make people realize wisdom, sambodhi on the right doctrine, tathatā; from philosophical point of view, the truth is realizing the cosmic truth, true vitality of self and the correct view of life; and from moralistic view point, it is changing all people to abandon evil mind and to possess good mind; and from living point of view, it is to make all people to have permanent happiness by leaving all the pain behind.

One needs to find eight correct ways in order to reach the primary and fundamental Four Doctrines of kyamuni who said to approximate in medical diagnosis; suffering, its cause, its ending, and the way thereto.

The best statute to find these ways is six pāramitās, and those who can well carry on these six pāramitās are thus Bodhisattvas.

The eight ways are correct view in regard to the Four Axioms, correct thought and purpose, correct speech, correct deed, correct livelihood or occupation, correct zeal, correct remembrance, and correct meditation.

The six pāramitās are carrying on good deeds based on four mind sets: the mind of love, pity, joy, and abandonment. Among the six pāramitās, the first is giving including the bestowing of the truth on others. The next are keeping the commandments, patience under insult, zeal and progress, meditation or contemplation, and wisdom or the power to discern reality or truth.

What if those medical professionals can be acquainted with these ascetic exercise methods? Especially, when a doctor is faced with a certain dilemma or when a certain temptation comes in the way, he/she can be helped in making decisions by thinking with these ascetic exercise ways and methods.

The fact that all human diseases have a definite cause, agrees with a belief of

Buddhism, the hetu-pratyana theory; hetu means a primary cause, and pratyana, a secondary cause. Accordingly, modern medicine is the art and science of clarifying a cause to eliminate the cause to bring a patient comfort. A doctor is someone who plays the role of establishing the cause of a disease and treating the disease.

Thus, when one follows the Buddhist ascetic exercise method, it is believed that any problems can be solved more easily to bring comfort. Then, the content of the ascetic exercise is thus become the ethic of Buddhist medical care. In conclusion, it can be known that medical activity is the road to Bodhisattva.

---

\*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Dongguk University*